

「黃帝內經」에 나타난 日月星辰에 관한 研究

朴燦榮* · 金基郁** · 朴炫局***

A Study on the Sun-Moon-Stars(日月星辰) appeared in Huang Ti Nei Ching(「黃帝內經」)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Sun-Moon-Stars(日月星辰) in Huang Ti Nei Ching(「黃帝內經」) on the formation of the Yunqi theory(運氣理論) have revealed following conclusions.

1. There was a record of Stars(星辰) written by Gabgol-Character(甲骨文字) in the Yin(殷) Dynasty. But the very first documentary records of Stars(星辰) is Shu Jing(「書經」). Ancient astrology had the tendency of astrology of combined with theory of the Five Elements(五行) and finally effects the theory of formation of Huang Ti Nei Ching(「黃帝內經」).

2. Shu Jing(「書經」) said that Junrak(錢樂) made an Armillary sphere(渾天儀) in the Sung(宋) Dynasty. And in the Jin(秦) and the Han(漢) Dynasty, they already observed the stars. The Sunkio-khyung(璿機玉衡) which is machinery of star-observing, became to be called an Armillary sphere(渾天儀) by the pass of times.

3. As of the theory of the Cosmos-structure(宇宙構造論) in Ohanunhangdaeron(「五運行大論」), Guiyugu(鬼臾區) announced the Hypothesis of Covering Heaven(蓋天說) but Kibak(岐伯) supported the Hypothesis of chaosheven's(蓋天說) and in the theory of atmosphere(大氣論) in Ohanunhangdaeron(「五運行大論」) said that the earth was in Great Empty(太虛) and it was floating in the universe by the Great Chi(大氣).

4. The knowledge about the Five stars(五星) in Huang Ti Nei Ching(「黃帝內經」) is presented in the section of Gemgwějineonron(「金匱真言論」), Gigoupyondaeron(「氣交變大論」), Youkwonjeonggidaeron(「六元正紀大論」). In the method of identifying the Five stars(五星) presented the criteria of the brightness, the altitude, the colours and the orbit etc.

*, **) 原典 · 醫史學教室

***) 原典 · 醫史學教室 主任教授

5. The Jupiter which has twelve year's revolution cycle was the basis of determination on the Twelve constellation(12辰), the Twelve field of heaven(12次), the Twelve Houses in the ecliptic(黃道 12宮), the Twelve Earth's Branches(12支) and the Twelve fields of Earth(12分野) and also it became the origin of the duodecimals(12進法).

6. The Saturn having about twenty-eight year's revolution cycle became the criterion in identifying the Twenty Eight Constellations(28宿) which was used as the coordinates of the Celestial sphere (天球).

7. By the Percussional movement(歲差運動), the position of polaris and the Vernal-Antumal equinox(春秋分点) were shifted. Therefore the ancient the Heaven Gate-Earth Door(天門-地戶) changed from the position of Sil-Byuk(室壁), Yik-Jin(翼軫). And the precisional movements brought about the concept of the WunHoyYunSe(元會運世) that is a method of dividing a period. Also the precisional movement gave three dimension(三次元) foundation interpreted the Sixty JiaZi(六十甲子) which is revolving through sixty years uniformly.

8. The Hypothesis of the Nine Houses and Eight Winds(九宮八風論) which is one field of the astrology of ancient polaris-nine Houses divination plate(太一九宮占盤) brought about the concept of deficiency and excess and the concept of the Wind Vice(風邪). In the Calendar System(曆法) presented in Huang Ti Nei Ching(『黃帝內經』) the tropical year of the Sun-Moon-Stars(日月星辰) and the revolution and the rotation of the earth give explanations the changes of Yin-Yang(陰陽) by the use of the ten Celestial branches(十干) and the twelve Earth branches(十二支).

I. 緒 論

古代 文明의 胎動에 있어 가장 중요한 關鍵은 自然 속에 投影된 人間이 人間 스스로의 存在를 認識하고 事物의 法則들을 發見함에 있었다. 이러한 물음에 가장 훌륭한 解答의 실마리를 提供하였던 것이 하늘의 日月星辰의 運動과 變化였다. 따라서 天體의 變化에서 어떠한 法則性을 발견하게 되고 地上의 자연변화를 상대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 運氣論의 형식으로 발전되었다.

殷代 甲骨文에서 이미 星象의 이름이 記錄¹²⁾ 되어 있으며, 古代의 여러 文獻과 歷代 史書에서도 天文에 관한 資料가 記載되어 있다³⁴⁾. 戰國時代부터 後漢에 걸쳐 成書된⁵⁶⁾ 『黃帝內經』은 當時의 天文學 影響을 받아 醫學 理論에 導入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論者는 『黃帝內經』의 日月星辰에 대한 資料를 分析하여 古代 天文學이 東洋醫學 가운데 五運六氣 理論의 形成에 어떠한 關係가 있는가를 考察하기로 한다. 아울러 『內經』속에 나타난 日月星辰의 概念을 現代 天文學적인

1) Joseph Needham 中國의 科學と 文明 제5권 思索社 1979 p.306
 2) 陳遵媯 中國天文學史〈第一冊〉明文書局 民國73年 p.188
 3) 俞景老 天象列次分野之圖600年學術大會 韓國天文學會 1995 p.2
 4) 藪內清 中國의 天文曆法 平凡社 昭和四四年 pp.4-5
 5) 洪元植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1987 p.40
 6) 余自漢 外7人 內經靈素考 中國中醫藥出版社 1992 pp.22-23

관점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古代 天體觀測

中國에서는 이미 殷代 甲骨文에서 星象의 이름이 나타나며, 文獻上으로 가장 오래된 記錄은 「書傳」이다. 初創期 古代天文學은 占星學의 分野로 戰國時代 五行學說과 結合된 體系를 갖추게 되었으며, 그 以後 「黃帝內經」의 理論 形成에 影響을 미치게 되었다.

司馬遷의 「史記·天官書」에서 500여개의 恒星을 처음 기록하였고 「漢書·天文志」에서는 200여개를 증가시켜 783개에 달하였다. 東漢 천문학자 張衡은 이전의 숫자를 크게 초과한 2500여개의 恒星을 기록하였다. 「史記·天官書」에서는 하늘을 다섯으로 나누어 五宮이라 하였다. 中宮은 北極星 부근의 星空이고 中宮을 제외한 부분은 春分·黃昏時에 관측한 것을 표준으로 삼아 東, 西, 南, 北에 따라 四宮으로 나누고 每宮마다 七宿을 두어 모두 二十八宿⁷⁾으로 하였다. 나중에 中宮을 셋으로 나누어 三垣이라 하였는데 즉 紫微垣, 太微垣, 天市垣이다.⁸⁾ 이들은 北極星 周邊과 사자자리 일대

헤라클레스자리 부근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 紫微垣은 하늘을 主宰하는 太一神이 居住하는 곳이며, 太微垣은 天子의 宮庭이고, 天市垣은 天子가 諸侯를 거느리고 行次하는 都市를 象徵하였다⁹⁾.

中國에서는 이미 殷代 甲骨文에 星宿의 이름을 記錄하고 있으며, 古代의 여러 文獻과 歷代 史書의 天文志와 曆志에 계속 記載하였다. 南北朝 時代의 陣卓이 옛 巫咸, 甘德, 石申의 星表를 정리하여 「三家星經」을 지었고, 이것을 庾李才가 星圖¹⁰⁾를 그렸다. 「步天歌」는 丹元子가 「步天歌」¹¹⁾의 歌訣을 添加하여 完成된 星圖로서 이후 中國 星圖의 基本的인 틀이 되었다. 宋代에는 蘇頌의 「新儀象法要」와 「渾象紫微垣之圖」¹²⁾와 現存하는 世界에서 最古의 石刻 天文圖의 하나인 「淳祐石刻天文圖」 등의 星圖가 만들어졌다. 明代에는 西洋人 宣教師가 들어와 그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天文圖¹³⁾와 精密한 星表를 만들게 되었다.

별은 觀察 基準에 따라 北極常見圈, 赤道圈, 南極常隱圈, 黃道圈으로 크게 四圈域으로 나누어지며 星宿은 日月, 五星의 太陽系 內行星과

7) 段逸山 醫古文 人民衛生出版社 1986 p.699

古人들의 長期間에 걸친 觀測을 통하여 黃道와 赤道 附近의 28個의 星宿을 앞뒤로 선택하여 ‘座標’로 삼고 그것을 28宿이라 불렀다. 東方 蒼龍七宿은 角·亢·氏·房·心·尾·箕이며, 北方 玄武七宿은 斗·牛·女·虛·危·室·壁이며, 西方 白虎七宿은 奎·婁·胃·室·畢·觜·參이며, 南方 朱雀七宿은 井·鬼·柳·星·張·翼·軫이다.

8) 戴內清 中國의 天文曆法 平凡社 昭和四四年 pp.120-121

“星宿”은 다만 하나의 별이 아니라 이웃한 별들의 집합을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면 角宿(2星 Vir), 亢宿(4星 Vir), 氏宿(4星 Lib), 房宿(4星 Sco), 心宿(3星 Sco), 尾宿(9星 Sco), 箕宿(4星 Sgr), 斗宿(6星 Sgr), 牛宿(6星 Cap), 女宿(4星 Aqr), 虛宿(2星 Aqr), 危宿(3星 Aqr), 室宿(2星 Peg), 壁宿(2星 Peg), 奎宿(16星 And), 婁宿(3星 Air), 胃宿(3星 Air), 宿(7星 Tau), 畢宿(8星 Tau), 觜宿(3星 Ori), 參宿(7星 Ori), 井宿(8星 Gem), 鬼宿(4星 Cnc), 柳宿(8星 Hya), 星宿(7星 Hya), 張宿(6星 Hya), 翼宿(22星 Cra), 軫宿(4星 Crv)이다. 所謂 東方의 蒼龍·北方의 玄武·西方의 白虎·南方의 朱雀은 古人들이 七宿을 連繫하여 想像한 네 가지 動物의 形狀으로 ‘四象’이다”고 하였다.

9) 陳遵煥 中國天文學史〈第二冊〉明文書局 民國73年 p.33

10) 柳基天 占星學이란 무엇인가 精神世界社 1995 p.302

11) 權泰勳 天符經의 비밀과 백두산족 문화 精神世界社 1989 p.280

12) 陳遵煥 中國天文學史〈第二冊〉明文書局 民國73年 p.3, p.25, pp.161-165

13) 上揭書 pp.208-209

14) 이태형 韓國의 천문도 天文宇宙企劃 1995 p.40

十二次, 十二辰, 十二宮, 十二分野, 二十八宿 등의 太陽系 外의 恒星으로 區別¹⁵⁾되어 진다.

2. 占星學의 形成

二十八宿 座表의 확립과 함께 行星들의 위치를 精確히 측정할 수 있었고, 周·漢時代 초기까지는 行星들의 會合 週期도 알려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惑星들의 運행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들의 運행이 外行星 불규칙하다는 사실은 占星術의 세계가 전개되는데 많은 자료를 제공하였다. 불규칙성이란 日食과 月食, 惑星들의 逆行이나 輝度의 增減¹⁶⁾ 따위와 같은 것이다. 예를 들면 『淮南子·天文訓』에서는 “熒惑은 10월에 항상 太微에 들어가 制命을 받고 그곳에서 나와 列宿을 巡視한다. 그 職務는 無道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인바, 混亂을 일으켜 殺傷을 빚고 疾病을 퍼뜨려 死藏에 이르게 하며 饑饉을 불러들여 兵亂을 主導한다. 그 出入에는 一定한 時期가 없고 그 빛깔이 수시로 변화하며, 어떤 때는 보이고 또 어떤 때는 보이지 않는다”¹⁷⁾라 하여 火星에 대한 占星術의인 견해를 나타내었다.

이미 長沙 馬王堆三號漢墓에서 出土된 帛書에는 “五星占”이 記載¹⁸⁾되어 있어 당시의 占星術에 관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中國의 고대 占星術은 해와 달, 行星들의 運행과 함께 恒星들의 색깔 변화나 彗星 및 新星의 出現 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恒星占星術’이라 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와 같은 占星術은 고대 中國의 역사를 통해 개인의 운명보다도 天變地異나 국가의 운명을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달하였다.

3. 古代의 宇宙構造論

『晉書·天文志』에는 宇宙構造論에 관한 여섯 가지 說¹⁹⁾이 기록되어 있다. 즉 蓋天說·渾天說·宣夜說·安天論·穹天論·昕天論²⁰⁾이 그것이다.

中國에서 가장 오래된 天文觀測法인 周髀法²¹⁾과 結付되어 발전한 蓋天說은 前漢 초기까지 唯一한 科學的인 宇宙構造論이었다. 王充²²⁾의 이러한 蓋天說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고 위아래에 위치하여 北極에 그 中心을 둔다. 固定된 物體로서의 하늘은 北極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즉 東에서 西로 돌고, 해와 달은 오른쪽으로 즉 西에서 東으로 돌며 兩者는 鬮들과 개미에 比喩된다. 鬮들은 왼쪽으로 돌고 그 표면을 개미가 오른쪽으로 간다. 鬮들의 回轉은 개미의 걸음보다 빨라서 개미도 왼쪽으로 도는 것처럼 보인다. 해와 달은 실제로 동쪽으로 나아가지만 하늘에 끌려 서쪽으로 지는 것이

15) 俞景老 天象列次分野之圖600年學術大會 韓國天文學會 1995 p.4

16) 柳基天 占星學이란무엇인가 精神世界社 1995 p.302

17) 李錫浩 淮南子 世界社 1994 p.71

18) 陳遵煇 中國天文學史〈第二冊〉明文書局 民國73年 pp.193-203

19) 야마다 케이저 朱子の自然學 蓬나무 1991 pp.33-56

20) 戴內清 中國의 天文學 科學選書 1985 서울 pp.33-39

21) 髀를 가지고 太陽의 高度를 측정하는 것이 周代에 성행하였으며, 蓋天說과 周髀法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蓋天說을 자세히 설명한 『周髀算經』에는 髀를 周髀라 하였다. 周髀의 길이는 周尺으로 八尺이고 이것으로 日中의 그림자 길이를 재면 夏至에는 1尺6寸, 冬至에는 1丈3尺5寸이 된다. 이것은 周地에서의 값인데 周地로부터 正南으로 1000里의 지점에서는 夏至日中의 그림자 길이를 재어서 1尺5寸의 값을 얻었다. 그러므로 그림자의 길이 1寸의 差가 1000里의 差異에 해당한다. 이 率을 전체에 미쳐서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22) 劉君燦 中國天文學史 明文書局 民國77年 pp.33-40

다”²³⁾라 하였다.

蓋天說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는 渾天說은 張衡의 渾天儀²⁴⁾에서 “渾天은 달걀과 비슷하다. 껍질은 하늘에 해당하고 노른자는 땅에 해당된다. 하늘의 形體는 彈丸처럼 둥글고 땅을 둘러싸고 있다. 하늘의 外部와 内部에 물이 있다. 하늘과 땅에 위아래의 相對的인 位置를 鼎立시키는 것은 氣이며, 모두 물위에 떠 있다. 땅은 停止되어 있고, 하늘은 南北極을 軸으로 하여 끊임없이 수레바퀴처럼 回轉하고 있다”²⁵⁾고 하였다.

그 밖에도 後漢末에서 三國時代에 이르기까지 鄒萌의 宣夜說과 虞聳의 穹天論과 吳의 姚信의 昕天論 그리고 安天論 등이 나왔으나 모두 蓋天說과 渾天說의 範疇에 벗어나지 못하였다²⁶⁾.

이러한 宇宙構造論에 대한 인식은 『黃帝內經』 「五運行大論」에서 “帝曰 余問鬼與區曰 應地者靜 今夫子乃言下者左行 不知其所謂也 願聞何以生之乎. 岐伯曰 天地動靜 五行遷復 雖鬼與區其上候而已 猶不能遍明. 夫變化之用 天垂象 地成形 七曜緯虛 五行麗地 地者 所以載生成之形類也”²⁷⁾라 하여 鬼與區는 하늘을 六氣로 하고 땅을 五運으로 하여 단지 司天의 移動과 五運의 交替를 설명하며, 天圓如張蓋 地方如碁局과 같은 蓋天說에 입각한 天體構造

論을 언급하였으나, 岐伯은 黃帝의 물음에 대하여 鬼與區의 설은 遍明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하여 땅을 平面으로 보지 않고 一種의 球體로 본 渾天說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五運行大論」에서는 地球의 六氣變動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땅은 太虛 속에 있으며 大氣가 땅을 支撐하고 있다고 하였다. “帝曰 地之爲下否乎 岐伯曰 地爲人之下 太虛之中者也. 帝曰 憑乎 岐伯曰 大氣舉之也. 燥而乾之 暑而蒸之 風而動之 濕而潤之 寒而堅之 火而溫之. 故風寒在下 燥熱在上 濕氣在中 火遊行其間 寒暑六入 故令虛而生化也”²⁸⁾라 하여 六氣의 변화가 순차적인 節律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을 당시의 宇宙構造論에 입각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天地의 動靜은 단지 相對的인 것이며, 실제로는 天도 動하고 地도 動하며 天地之間의 관계는 根本과 枝葉의 整體的인 關係임을 나타내었고, 地는 人의 下에 있지만 실제로는 太虛之中에 있다고 하였다. 上述한 이러한 인식은 自然變化을 실제로 관찰함으로써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古人은 日月星辰의 위치 변화와 지상의 物化現象은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이에 따른 共範律을 세울려는 노력이 運氣論的인 格局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23) 야마다 케이지 朱子の 自然學 통나무 1991 p.37

24) Joseph Needham 中國의 科學と文明 제5권 思索社 1979 p.45

25) 劉君燦 中國天文學史 明文書局 民國77年 pp.45-51

26) 야마다 케이지 朱子の 自然學 통나무 1991 p.38

27) Joseph Needham 中國의 科學と文明 제5권 思索社 1979 p.49

28) 戴內清 中國의 天文學 科學選書 1985 서울 p.38

29) 程士德 素問注釋匯粹 人民衛生出版社 1982 p.191

30) 上揭書 p.193

鬼與區는 하늘을 六氣로 하고 땅을 五運으로 하여 단지 司天의 移動과 五運의 交替를 說明하였을 뿐이고, 六氣가 司天·在泉의 氣로써 각각 前半年과 後半年을 主宰한다고 하였다. 즉 黃帝와 鬼與區의 對話를 通하여, 鬼與區는 蓋天說을 主張하였으며, 岐伯은 渾天說을 主張하였음을 推測을 할 수 있다.

4. 天文觀測 器具

璿璣玉衡³¹⁾이란 말은 『書傳』 「虞書·舜典」에 言及하길 “舜 임금께서 堯 임금으로부터 宗廟에서 첫째 달 첫날에 帝位를 善讓받으시고 처음으로 하신 일이 玉으로 된 璿璣玉衡을 살피시어 七政을 바로 잡았다. 그 다음에 비로소 上帝께 祭祀를 올리고 하늘과 땅과 四時에 祭祀를 지냈으며, 山川에 제사를 지내고 또한 群神들에게 두루 제사를 지냈다”³²⁾고 하였다.

여기서 璿璣³³⁾란 天體를 觀測하는데 쓰이는 器械를 말하며, 玉衡³⁴⁾은 玉으로 만든 저울을 뜻하는데 결국 璿璣玉衡은 玉으로 만든 天體觀測의 器機이다. 『書傳』에서는 宋代 錢樂이 또한 渾天儀를 鑄造³⁵⁾하였다고 하였으며, 이미 秦國과 漢代 등에서 天文을 觀測³⁶⁾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러한 璿璣玉衡은 後世에 傳하여 지면서 渾天儀³⁷⁾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현재 中國에 2~3種이 남아 있고, 우리 나라에도 陶山書院에 李滉이 製作하였다는 木製 渾天儀와 창경궁의 銅製 小型渾天儀가 남아 있으며, 또한 世界唯一의 鍾動式 機械時計를 装着한 朝鮮 현종 때 觀象監인 宋以穎製作本이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³⁸⁾.

璿璣玉衡의 構成³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璿璣玉衡은 三辰儀와 四遊儀 및 이를 밑에서 받치는 龍柱와 鯨雲과 十字水準으로 구성되어 있다. 六合儀⁴⁰⁾는 동서남북 상하를 나타내는 天球로 天經과 天緯와 地平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天經은 天球의 經度를 표시하는 雙丸으로 24節氣가 표시되어 있으며, 天緯는

31) 야마다 케이지 朱子の 自然學 동나무 1991 p.227, 275, 287

32) 書傳 麗江出版社 1992 서울 p.127

『虞書·舜典』에서 “正月上日 受終于文祖 在璿璣玉衡 以齊七政 肆類于上帝 禋于六宗 望于山川 偏于群神”라 하였다.

33) 書經集傳 朝鮮圖書株式會社編纂 1983 p.81 “아름다운 구슬을 璿이라 하며, 璣는 기를 말한다. 이른바 기를 구슬로 꾸며서 천체의 돌아가는 象을 본받은 것이다.”

34) 上揭書 pp.81-82 “衡은 橫인데 가로로 된 통소 모양을 말한다. 옥으로써 管을 만들어서 기를 설치하여 七政의 運轉을 살피는 것이 마치 지금의 渾天儀와 같다.”

35) 上揭書 p.82 “예전에도 이러한 法則이 존재하였다고 確信하나 秦國때에 이르러 그 法則이 소멸하게 되었다. 漢代 武帝에 이르러 落下閎이 비로소 經營하였고 鮮于妄人이 또한 그것의 度數를 測量하였다. 宣帝에 이르러서는 耿壽昌이 銅으로 그 形狀을 鑄造하였으며, 宋代 錢樂이 또한 渾天儀를 酒造하였는데 그 衡의 길이는 八尺이고 구멍의 지름은 一寸이며, 기를의 直徑은 八尺이며, 원통의 둘레는 二丈五尺이 된다. 또한 이 器械는 強制로 回轉시켜서 日月星辰이 있는 場所를 알아 觀察할 수 있는 즉 이것이 璿璣玉衡의 남긴 法이다.”

36) 書傳 麗江出版社 1992 서울 p.130

37) Joseph Needham 中國の科學と文明 제5권 思索社 1979 p.49

Needham은 “最初의 天文機具인 渾天丸은 渾天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渾天儀는 張衡의 渾天論과 直接的인 聯關이 있다”라 하였으니, 아마 BC 1世紀頃에 渾天儀가 製作되었을 것이라 思料된다.

38) 권태훈 천부경의 비밀과 백두산족 문화 정신 세계사 1989 p.200

39) Joseph Needham 中國の科學と文明 제5권 思索社 1979 pp.205-227

40) 書經集傳 朝鮮圖書株式會社編纂 1983 pp.82-83 “歷代以來로 그 法이 점점 細密하여져 本朝(宋)에 이르러 이것을 因하여 儀를 세개 거듭하여 두었는데, 즉 그 바깥쪽에 있는 것이 六合儀인데 이는 平하게 黑單環으로 두었으며 위에는 十二辰과 八干과 네 모퉁이를 地平의 位置에 새겨 놓음으로써 地面의 四方을 定하는 基準이 되게 하였으며 기를어지게 黑雙環을 세워서 등에 去極度數를 새겨 하늘의 기둥이 垂直으로 地平에 걸터앉다 그 半은 地下로 들어가 子午(南北)에 맺어지게 하였다. 또한 비스듬히 赤單環을 설치하여 등에 赤道度數를 새겨 天腹을 고르게 나누어 橫으로 두르게 되니 天을 經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또한 半은 地上으로 나오고 半은 地下로 들어가 卯酉(東西)에서 맺어서 이어지는바 하늘의 緯度가 된다. 세 가지의 環은 袂과 속이 서로 連結되어 있어 마구 움직여지지 않는다. 天經의 環은 南北의 두 극이 圓축이 되어 가운데 구멍을 뚫어 안으로 향하게 하여 三辰과 四遊의 環을 이끌도록 되어 있는데 上下와 四方의 움직임을 上考할 수 있는바 六合이라 이름하였다.”

天球의 緯度를 표시하는 單丸으로 28宿이 표시되어 있고, 또한 地平에는 天經과 수직으로 連結되어 있는 單丸으로 八干과 十二支 東西南北이 표시되어 있다.

三辰儀⁴¹⁾는 日, 月, 星儀 運행을 나타내는 雙丸이며 이는 赤道單丸과 黃道單丸이 부착되어 있는 三個의 고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赤道單丸은 天緯와 平行이 되고 天經과 垂直이 되며 黃道의 中央線을 나타내고 있으며, 黃道單丸은 赤道單丸과 23.5°의 傾斜로 交叉하고 있으며 太陽의 運行과 度數를 나타낸다.

四遊儀⁴²⁾는 南極과 北極을 軸으로 하여 1일 1회전하는 雙丸으로 4季節 및 24節氣를 나타내는데, 四遊儀의 直經이며 남북을 잇는 軸인 直距와 星辰을 관측하는 등근 빈 통으로 直距와 교차하여 움직이는 玉衡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璿機玉衡을 받치고 있는 4개의 기둥인 龍柱와 龍柱의 가운데 받침대인 繫雲 그리고 繫雲을 중심으로 十字로 교차하며, 龍柱의 네 기둥과 垂直으로 결합한 상태로 璿機玉衡을 받치는 역할을 하는 十字水準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十字水準의 십자판 가운데로 홈이 파여져 있고 그 가운데 물을 채워서 수평을 가름하게 된다.

璿機玉衡의 渾天說⁴³⁾을 따르고 있으며 天文의 관측범위를 “하늘의 반이 땅의 반의 윗 부분을 덮고 있으며, 나머지 반은 땅 아래에 있어서 그 하늘이 땅위에居하여 보이는 것이 182度 半強⁴⁴⁾이며 땅의 아래도 또한 그러하다.

北極은 地上으로 36度 나와 있고 南極도 지하로 36度 들어가 있어 지극히 높은 것이니 이는 곧 하늘의 中이요 極南하여 55度居하면 마땅히 위의 지극히 높은 곳이 된다. 또한 南으로 12度居하게 되면 夏至의 日道⁴⁵⁾가 되고 또 그것이 남으로 24度居하게 되면 春秋分의 日道가 되고, 또 그 南으로 24度居하게 되면 冬至의 日道가 되는데, 단지 남하로 땅까지 거하는데 31도가 남을 뿐이다. 夏至의 日道는 北에서 去極67도가 되며 春秋分은 91도가 되며 冬至는 115도가 되는데 이것이 그 大體의 法이다”⁴⁶⁾라 하여 南北極 兩端을 基準으로 하여 하늘과 더불어 日月과 星辰이 비껴서 回轉함을

41) 上揭書 p.83 “다음은 그 안쪽이 三辰儀인데 기울어지게 黑雙丸을 세우고 또 去極度數를 새겨서 밖으로 天經의 축을 뚫고 안으로 黃道와 赤道를 이끄는데 그 赤道는 赤單環이 되어 밖으로 天經에 依支하게 되고 또한 별 자리의 度數를 새겨 赤單環을 卯西에 連結하였으며, 黃道는 곧 黃單環으로 하여 또한 별 자리의 度數를 새겼으며 赤道의 腹에 비스듬히 의거하여 卯西에 붙어 있게 되어 半은 그 안으로 들어가 春分以後의 日道가 되었으며 半은 밖으로 나와서 秋分以後의 日道가 되었다. 또한 白單環으로 걸쳐 이어짐을 연결하여 기계 아래로 미끄러져 빠짐을 막기 위하여 바퀴를 설치하여 돌로써 作動하게 하였다. 이 作動으로 晝夜로 天體가 東에서 西로 運行하게 하여 하늘의 움직임을 象받게 되었으니 日月星辰도 상고할 수 있기에 三辰이라 하였다.”

42) 上揭書 p.83 “그 가운데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이 이른바 四遊儀이며 이는 또한 黑雙環을 두어 三辰儀와 그 제도가 같게 하였다. 그러한 즉 天經의 軸을 뚫어 그 環의 안쪽에는 양쪽 中間에 各各 直巨를 두었으며 바깥쪽은 양쪽 축에 연결되어 있다. 그것의 正中央의 內面은 작은 구멍에 玉으로 된 衡을 두어 環을 따라 東西로 運行하게 하였으니 또한 四方高低의 位置한 어떠한 곳이라도 觀測할 수 있으니 24節候에 가히 우러러 볼 수 있다. 이러한 바 四方을 두루 觀測하지 못하는 바가 없기에 이른바 四遊라 하였으니 이것이 그 法의 大略이다.”

43) 上揭書 p.82 “渾天說曰天之形狀 似鳥卵 地居其中天包 地外猶卵之裏黃圓 如彈丸故曰渾天 言其 形體渾渾然也”

44) 陳遵媯 中國天文學史〈第四冊〉明文書局 民國73年 p.179(한국과학사회지 제17권 제1호 p.18참조)에 의하면 半強(7/12)은 0.583이 되는데 『書傳』의 내용으로 원을 365.25도로 계산하여 보면 半強은 0.625의 값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더욱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45) 태양이 움직이는 길을 말한다.

46) 書經集傳 朝鮮圖書株式會社編纂 1983 p.82

알 수 있다.

5. 古代 天文學과 『黃帝內經』의 關係性

東洋醫學에서 現存하는 最古의 醫書인 『黃帝內經』은 그 成立과 著述이 한 個人이나 한 時代에 完成된 것이 아니며, 戰國時代의 初期부터 後漢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共同努力으로 完成되었다⁴⁷⁾. 『黃帝內經』은 傳說的人物인 黃帝의 이름을 假托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한번에 著述된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補整이 되었음⁴⁸⁾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黃帝內經』이 여러 時代를 걸쳐서 이루어졌다면, 각 시대의 特征적인 哲學思想과의 相關性을 排除할 수 없을 것이다.

『黃帝內經』 속에 투영된 여러 理論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道家思想과 陰陽五行說이다. 先秦時代의 老莊派가 主唱한 ‘清淨無爲’ ‘返業歸眞’ ‘虛心實腹’ ‘專氣致柔’의 道家思想이 素問의 「上古天真論」 「四氣調神大論」 「生氣通天論」⁴⁹⁾ 등에서 볼 수 있다.

한편 『黃帝內經』은 黃帝가 그의 臣下들과 問答式으로 醫學을 論한 書인데 岐伯, 雷公, 鬼臾區 같은 臣下들이 모두 望氣家들로 天文을 觀察한 天文學者⁵⁰⁾이자 占星家였고 大氣學者였을 것이다. 이러한 望氣家들의 思想的 聯繫性은 戰國時代 整理된 것으로 보이는 五行은 『書傳』의 「洪範」⁵¹⁾에서 나타나며 이러한 諸子百家의 陰陽思想과 結合되어 『淮南子』의 「天

文訓」⁵²⁾에서 天文과 陰陽과 五行의 理致를 깨닫고 順從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書傳』과 『淮南子』에서 星辰에 대한 記錄⁵³⁾을 볼 때 이미 陰陽五行思想과 星辰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古代 自然觀인 五行思想에 神秘主義의 色彩를 加하여 당시 統治權者에게 天命에 副應할 것을 強調함으로써, 끝내는 董仲舒의 ‘天人相應論’이 漢代의 全體 思想界를 支配하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五行學說에 基盤을 둔 董仲舒의 ‘陰陽災異說’은 後漢의 王充 등의 비판을 받아 그 重要性이 크게 감소되었으나 「周易參同契」나 『黃帝內經』 등으로 擴散⁵⁴⁾되어 中國 傳統文化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影響을 끼쳤고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따라서 陰陽五行理論에는 天文思想이 溶해되었으며, 이러한 內容들이 醫學의 理論形成과 結付되었을 것이다.

6. 『黃帝內經』의 五星과 意義

『黃帝內經』에는 日月星辰에 대한 資料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 日月, 五星, 十二辰, 二十八宿, 太一等 天文學의 주요 대상의 별자리와 관련된 資料는 다음과 같은 篇에서 나타난다.

日月：「六節臟象論」 「五音五味論」 「歲露篇」 外 多數

五星：「金匱眞言論」 「氣交變大論」 「六元正

47) 余自漢 外7人 內經靈素考 中國中醫藥出版社 1992 pp.22-23

48) 洪元植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1987 p.46

49) 上揭書 p.44

50) 余自漢 外7人 內經靈素考 中國中醫藥出版社 1992 p.15

51) 書傳 麗江出版社 1992 서울 p.38

52) 『淮南子』 二十一篇 “東方木也 其帝太 其佐句芒 …… 其神爲歲星 其獸蒼龍 …… 南方火也 其神爲熒惑 其獸朱鳥 …… 中央土也 其神爲鎮星 其獸黃龍 …… 西方金也 其神爲太白 其獸白虎 …… 北方水也 其神爲辰星 其獸玄武”라 하였다.

53) 書傳 麗江出版社 1992 서울 p.30

54) 余自漢 外7人 內經靈素考 中國中醫藥出版社 1992 pp.75-98

氣大論」

十二辰：「經別篇」「衛氣行篇」

二十八宿：「五十營篇」「衛氣行篇」

太一：「六微旨大論」「六元正氣大論」「九宮八風篇」「九鍼論」「歲露篇」

기원전 2세기에 편찬된 『淮南子·天文訓』은 宇宙 昌盛論과 함께 해와 달을 필두로 한 天體의 生成 및 그들의 本質과 그리고 天文 現象과 그에 대한 占卜的인 言說 等を 收錄한 書籍이며, 여기에는 “東方은 木이고 …… 그 神은 歲星이다”⁵⁵⁾라는 記載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歲星은 木星이며, 神은 『史記·天官書』에 의하면 精을 意味하기 때문에 ‘木星은 東方 木의 精이다’⁵⁶⁾라는 意味가 된다.

따라서 五行說의 성립과 함께 五星(水·金·火·木·土星은 古代에는 각각 辰星·鎮星·太白·熒惑·歲星⁵⁷⁾이라 함)의 精氣가 五行으로 분류되는 地上의 모든 現象事物에 根과 枝葉의 관계와 같이 영향하며 이것이 『黃帝內經』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比類取象되고 응용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黃帝內經』의 五星 關聯資料

(1) 「金匱眞言論」

岐伯曰 有 東方青色 入通於肝 開竅於目 藏精於肝 …… 其應四時 上爲歲星

南方赤色 入通於心 開竅於耳 藏精於心 …… 其應四時 上爲熒惑星

中央黃色 入通於脾 開竅於口 藏精於脾 …… 其應四時 上爲鎮星

西方白色 入通於肺 開竅於鼻 藏精於肺 …… 其應四時 上爲太白星

北方黑色 入通於腎 開竅於二陰 藏精於腎

…… 其應四時 上爲辰星.⁵⁸⁾

本篇은 五行을 一切事物에 배속시켜 人體에 內在하는 臟腑와 四肢, 百節, 經脈, 氣血과 時間, 空間 및 萬物 品類와 관련시켰는데, 이는 天人相應하는 『黃帝內經』의 기본적인 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垂象하는 五星은 根과 같은 根源의이고 주도적인 것인 반면 時空을 포함한 지상의 成形된 모든 사물은 枝葉과 같이 이에 상응한다. 그러나 위의 문장구조로 보면 主從關係로 記述하지 않고 수평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2) 「氣交變大論」

帝曰 五運之化 太過何如

岐伯曰 歲木太過 風氣流行 脾土受邪 民病 …… 上應歲星 ……

死不治 上應太白星

歲火太過 炎暑流行 金肺受邪 民病 …… 上應熒惑星 ……

雨水霜寒 上應辰星 …… 死不治 上應熒惑星

帝曰 善 其不及何如

岐伯曰 悉乎哉問也

歲木不及 燥乃大行 生氣失應 …… 柔萎蒼乾 上應太白星 ……

涼雨時至 上應太白星 …… 化氣乃急 上應太白鎮星 ……

癘疹癰座 上應熒惑太白 …… 咳而 上應熒惑太白星 ……

歲火不及 寒乃大行 長政不用 …… 乃折榮美 上應辰星 ……

飢饉如別 上應熒惑辰星 …… 足不任身 上應辰星 ……

本篇은 歲氣가 변화하는 총괄적인 규율을

55) 李錫浩 淮南子 世界社 1994 p.69

56) 朴一峰 史記「本紀·表·書」 育文社 1995 p.480

57) 李錫浩 淮南子 世界社 1994 p.71

58) 李炳文 外4人 『黃帝內經』素問今釋 成輔社 1983 p.19

나타낸 것으로, 歲運의 太過와 不及이 자연계의 기후와 만물에 미치는 영향과 인체의 질병이 발생하는 양태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⁵⁹⁾

本篇의 첫머리에서 黃帝의 물음에 ‘五運更治相應天氣’라 하여 五運이 바뀌면서 다스리는 것은 五星의 運行과 相應하여 나타난다고 하였다. 各運의 太過와 不及에 따른 自然界의 氣候와 萬物 및 疾病이 發生하는 樣態는 모두 五星과 相應한다고 하였으며, 太過와 不及을 說明하는 마지막 結論으로서 ‘上應五星’이라 하였다. 이는 옛사람들이 五星과 自然界의 현상을 구체적으로 관찰하여 하나의 法則을 도출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되지만, 현대 천문학적 관점에서의 타당성은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3) 「六元正紀大論」

凡此太陽司天之政 氣化運行先天 天氣肅 地氣靜 …… 水土合德 上應鎮星辰星

凡此陽明司天之政 氣化運行後天 天氣急 地氣明 …… 金火合德 上應太白熒惑

凡此少陽司天之政 氣化運行先天 天氣正 地氣擾 …… 火木同德 上應熒惑歲星

凡此太陰司天之政 氣化運行後天 陰專其政 陽氣退酸 …… 流行氣交 上應鎮星辰星

凡此少陰司天之政 氣化運行先天 地氣肅 天氣明 …… 金火合德 上應熒惑太白

凡此厥陰司天之政 氣化運行後天 諸同正歲 氣化運行同天 …… 風火同德 上應歲星

本篇에서는 每年 司天에 따라 변화하는 기후의 특징과 이에 따르는 자연계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여, 司天之氣는 五星과 相應한다고 하였다.⁶⁰⁾

또한 太陰司天之氣는 水土合德으로 上應辰

星鎮星이라 하였으며, 나머지 다른 司天之氣도 二個의 五星과 相應함을 볼 수 있다. 이는 司天之氣運과 在泉의 氣運이 相合된 것으로, 假令 太陰司天之 氣는 太陽寒水의 氣運이 司天이 되고 太陰濕土의 氣運이 在泉이 된다. 따라서 司天和 在泉의 水土合德으로 太陽司天之氣가 이루어지며 이는 하늘의 辰星과 熒惑에 응한다고 하였다.

나머지 司天들도 子午卯酉가 하나의 집단으로 金火合德으로 太白·熒惑에 相應하고 寅申巳亥가 火木同德으로 熒惑·歲星의 二個의 五星에 상응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五行一五運一五星의 對應關係로 자연계의 현상을 설명하였고 그 근원은 五星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 篇에서는 六氣를 五星과 상응시킨 점이 특이 하다. 물론 六氣를 五行으로 歸類시킬 수는 있지만 自然界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五運 중심에서 六氣 중심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지며, 이 시대 사람들의 思考의 틀이 오행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2) 五星의 觀測方法

외관은 恒星과 비슷하지만 恒星을 배경으로 이동하는 一等星인 다섯 개의 별을 옛사람들은 주목하고 이를 行星이라 하였다. 즉 망원경 없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水星·金星·火星·木星·土星이며, 이 行星들은 일정한 방향이나 속도가 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떠돌이 별이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과연 이 行星들이 일정한 궤도도 갖지 않고 불규칙하게 운동하고 있는가? 行星들의 운동이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느 한 점에

59) 上揭書 p.337

60) 上揭書 p.369

고정되어 있지 않고 太陽의 周圍를 一定한 軌道로 公轉⁶¹⁾하고 있기 때문이다.

움직이고 있는 地球上에서 우리가 또 다른 軌道를 따라 公轉하는 行星들을 관찰하기 때문에 行星의 운동은 그 行星의 겉보기 운동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겉보기 운동이 「黃帝內經」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면, 「素問·氣交變大論」에서 德·化·政·令을 언급한 부분에 五星에 관한 관찰과 해석이 비교적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五星의 관찰은 色·高度·遠近·軌道等 여러 현상을 복합적으로 관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는 太過·不及과 세상사의 吉凶을 예측하는 占星의 분야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氣交變大論」의 原文을 살펴보면

帝曰 其行之徐疾逆順何如 岐伯曰 以道留久 逆守而小 是謂省下 以道而去 去而速來 曲而過之 是謂省遺過也 久留而環 或離或附 是謂譏災 與其德也 應近則小 應遠則大 芒而大 倍常之一 其化甚 大常之二 其省即也 小常之一 其化減 小常之二 是謂臨視 省下之過與其德也 德者福之 過者伐之 是以象之見也 高而遠則小 下而近則大 故大則喜怒通 小則禍福遠 歲運太過 則運星北越 運氣相得 則各行以道 故歲運太過 長星失色 而兼其母 不及則色兼其所不勝 肖者瞿瞿 莫知其妙 閔閔之當 孰者爲良 妄行無徵 示畏侯王

이상과 같이 이 시대 사람들은 五星에 도덕적으로 懲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였고, 五星의 운동과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자연계의 災難을 예측하였다. 그러나 “應常不應卒”이라

하여 예측할 수 없는 災難은 五星의 변화와는 상응하지 않는다고 하였다.⁶²⁾

(1) 五星의 遠近 및 밝기

「氣交變大論」에서 “應近則小 應遠則大 芒而大 倍常之一 其化甚 大常之二 其省即也 小常之一 其化減 小常之二 是謂臨視 省下之過與其德也 德者福之 過者伐之 是以象之見也”라 하여 行星이 地球의 位置와 遠近에 따른 빛의 強弱에 의해 세상사의 吉凶禍福을 說明하고 있다. 張志聰은 芒을 ‘五星의 光芒’이라 하여 빛의 밝기를 뜻한다고 하였다. 그 빛의 밝음이 平常時의 一倍, 二倍, 二分之一倍, 四分之一倍의 差異에⁶³⁾ 따라 ‘德者福之’하고 ‘過者伐之’한다고 하였다.

실제 五星의 가장 밝을 때 겉보기 등급은 水星이 -1.9, 金星이 -4.4, 火星이 -2.8, 木星이 -2.5, 土星이 -0.4⁶⁴⁾로 대부분 가장 밝은 恒星보다 越等히 밝다.

(2) 五星의 高度變化

「氣交變大論」에서 “高而遠則小 下而近則大 故大則喜怒通 小則禍福遠”이라 하여 行星들의 高度 變化에 대해 언급한 것인데, 이는 현대 천문학적인 관점에 있어서 太陽系 內的 行星들을 側面에서 보면 거의 一直線上에 排列되어 있어 軌道들이 거의 平面上에 位置 한다고 할 수 있지만, 微細한 角度로 地球의 公轉平面과 조금씩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地球에서 行星을 관찰하면 行星들이 南과 北의 上下로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行星들의 地球 公轉軌道와의 傾斜角을 보면 水星이 7度, 金星 3.2度, 火星 1.5度, 木星 1.2度,

61) 羅逸星 새 천문학 정음사 1993 p.136

62) 洪元植 「黃帝內經」素問 傳統文化研究院 1994 p.409

63) 白允基 「黃帝內經」運氣解釋 高文社 1991 p.55

64) 조경철 現代天文學 大光印刷公社 1989 p.108

65) 민영기 外2人 敎養天文學 螢雪出版社 1994 p.356

土星 2.3度⁶⁶⁾로 水星이 가장 上下의 振幅이 크고 木星이 가장 작다.

(3) 五星의 色의 變化

다음은 行星의 色에 대한 觀測이다. 五行을 比類取像한 色에 대한 配屬은 木은 靑이며, 火는 赤이며, 土는 黃이며, 金은 白이며, 水는 黑色이다. 만물을 五行의 概念에 歸屬시킨 原理와 法則에 依據한 星宿의 解釋을 직접 하늘의 별의 觀察을 통해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氣交變大論』에서 “歲運太過 畏星失色 而兼其母 不及則色兼其所不勝”이라 하여 五星의 太過와 不及에 따른 色의 變化를 언급하고 있는데, 가령 木星이 太過하면 畏星인 土星이 자기 색깔인 黃色을 잃고 母星의 色인 赤色을 兼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木星이 不及하면 木星 고유의 靑色에 所不勝한 色인 金星의 白色을 兼⁶⁷⁾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色의 變化에 대한 觀察記錄은 『史記·天官書』, 『淮南子·天文訓』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五星의 正常色에 다른 色이 兼하여 졌느냐에 따라 歲의 太過와 不及 및 吉·凶·禍·福을 豫測하였다.

육안적인 觀察에서도 酸化鐵로 표면이 뒤덮인 火星은 붉은 색을 띠고 있어 戰爭과 災殃을 부르는 아주 不吉한 별로 예로부터 認識⁶⁸⁾되어졌고, 새벽과 초저녁 가장 밝게 보이는 金星은 이름 자체가 太白星⁶⁹⁾이라 할만큼 흰빛이 強烈한 별이며, 土星은 누르스름한 黃金의 별로 불리었고, 실질적으로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木星은 “색깔이 靑色이고 빛이 燦爛하다”⁷⁰⁾고 『史記·天官書』에 記載되어 있다.

그런데 水星이 黑色으로 配屬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별 빛이 짐을 수는 없고 水星의

特徵을 나타낸 象徴적인 色이라 생각되는데, 水星은 一年에 세 번 정도 해질 무렵 서쪽하늘 地平線 근처나 해뜨기 직전 동쪽 하늘에 나지막하게 겨우 보일 뿐이다. 현대 천문학적 입장에서조차 태양에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水星은 태양의 直射光線을 피할 길이 없어 표면이 黝덩이처럼 까맣게 되어 있다⁷⁰⁾고 한다. 이런 緣由로 옛 사람들은 水星에 黑色을 配屬시킨 듯하다.

(4) 五星의 運行軌道

五星의 運行軌道에 대한 관찰을 『氣交變大論』에서 “以道留久 逆守而小 是謂省下 以道而去 去而速來 曲而過之 是謂省遺過也”이라 하였는데, 現代 天文學에서도 行星의 걸보기 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內行星의 運行軌道에 관하여 金星과 水星은 地球의 公轉軌道보다 작은 軌道를 따라 太陽의 둘레를 公轉한다. 太陽을 中心으로 地球보다 안쪽에 있는 行星이기 때문에 內行星이라고 한다. 內行星은 地球의 公轉軌道 안에서 公轉하기 때문에 地球에서 볼 때는 太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하늘에 있을 수는 없고, 太陽을 보는 方向에서 一定한 角度 안에서만 보인다. 이 一定한 角度란 觀測者가 볼 때 內行星이 太陽에서 最大로 멀리 떨어져 보이는 角距離이다.

또한 金星은 水星보다 훨씬 크고 地球에 더 가깝기 때문에 달처럼 位相의 變化가 確實하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初生에 가까울수록 지름이 커 보이며 보름에 가까울수록 작게 보인다. 이런 現狀들은 水星과 金星이 地球의 公轉軌道보다 작은 軌道를 따라 公轉하고 있음을

66) 張景岳 類經下 大成文化社 1986 p.566

67) 이항순 우리태양계 현암사 1995 p.51

68) 李錫浩 淮南子 世界社 1994 p.71

69) 朴一峰 史記「本紀·表·書」 育文社 1995 p.481

70) 이항순 우리태양계 현암사 1995 p.29

말해 주는 同時에 太陽을 向한 方向으로부터 東西로 限定된 하늘에만 局限되어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金星이 가장 밝게 보이는 때는 太陽의 左右에 있어서 金星의 반조각만 볼 때이다. 동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를 西方最大離角⁷¹⁾ 이라고 하며, 最大離角은 約 四十八度 이다. 水星 역시 內行星이므로 金星과 마찬가지로 位相의 變化가 있다. 그러나 金星에 비해 매우 작고 또 太陽에 너무 接近해 있으므로, 밝은 태양 빛의 方解가 甚하므로 작은 망원경으로는 알아보기 어렵다.

다음은 外行星의 겉보기 運動⁷²⁾에 關하여 言及하면 火星·木星·土星과 같이 肉眼으로도 밝게 보이는 行星들과 望遠鏡 없이는 볼 수 없는 天王星·海王星·冥王星은 地球의 公轉 軌道보다 더 큰 軌道를 따라 太陽의 周圍를 公轉한다. 地球보다 바깥쪽에 있는 行星이기 때문에 外行星이라고 한다.

外行星은 地球의 軌道보다 더 큰 軌道로 運動하기 때문에 內行星의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 겉보기 운동은 太陽에 가까운 局限된 하늘에서만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太陽의 正反對 方向의 하늘에서도 보인다. 外行星의 겉보기 운동은 順行과 停止 그 다음은 逆行과 順行을 反復⁷³⁾하게 된다. 이 운동에 있어 얼마 동안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留라고 한다. 그러나 留는 어떤 특별한 하나의 점이나 視覺이 아니다. 古代로부터 行星들을 觀察해 왔던 사람들이 行星의 운동이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붙인 이름일

뿐 그 運動 自體에 特別한 意味가 있는 것은 아니다.

以上과 같이 五星軌道 運行의 徐迭逆順을 보고 人間事의 吉凶을 豫測하였다. 『史記·天官書』에는 “運行軌道가 색깔보다 우위에 있고, 색깔은 天球上의 위치보다 우위에 있으며, 정상적인 星次는 星次를 어긴 것보다 우위에 있고, 정상적인 색깔은 비정상적인 색깔보다 우위에 있으며, 運行軌道·星色·星次 가운데 運行軌道를 으뜸으로 친다”⁷⁴⁾고 하여 이 運行軌道가 다른 要素보다 훨씬 중요하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동양의 史書인 『天文志』에서 五星의 운행과 나라의 災難에 대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으나 현대 천문학적인 입장에서 五星의 運行 軌道, 속도, 색깔, 遠近이 지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드문 상태이다. 향후 이에 대한 천문학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3) 歲星의 意義와 歲差運動

(1) 歲星의 意義

『左傳』이나 『國語』 등에는 歲星 即 木星의 運行이 占星分野에 이용된 기록이 나타난다. 木星은 光度나 運行의 규칙성에서 東西古今을 통해 가장 高貴한 별로 推仰 받았으며, 바빌로니아에서는 最高神 마르두크였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역시 신들의 왕인 제우스 주피터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木星은 약 十二年에 걸쳐 天球를 一週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天球上의 赤道를 十二等分 하고, 木星의 位置에 의해 任意의 年을 각각

71) 羅逸星 새 天文學 정음사 1993 p.141

72) 上揭書 pp.140-141

73) 上揭書 p.140

74) 朴一峰 史記 育文社 1995 p.491

다른 이름으로 지칭⁷⁵⁾하였다. 木星을 특별히 歲星이라고 부른 것은 그러한 연유이며, 이와 같은 歲年 記年法을 ‘歲星紀年法’⁷⁶⁾이라 한다.

十二區로 나누어진 적도부근의 하늘을 十二次라고 하였으며 一種의 相應理論인 ‘分野說’에 의해 春秋戰國時代의 各國들은 어느 한 구역에 배당되었다. 이 十二次는 黃道 十二宮과 비슷하고 十二支를 대응시켰다. 一年을 十二個月로 나누고 각 月의 기준점을 歲星의 12次에 따라 十二支로 명명하였으며 北斗七星의 斗柄이 가리키는 시점을 해당되는 月로 삼았다. 따라서 歲星紀年法은 12월의 기후변화에 기준이 되는 準據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實測에 의하면 木星의 週期는 11.86年⁷⁷⁾으로 약간의 誤差가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오차의 폭이 더욱 커져 정확한 기준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

(2) 歲差 運動

太一 即 北極星에 관한 名稱은 『黃帝內經』의 『素問』에서 二篇, 『靈樞』에서 三篇 等 總五篇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黃帝時代 당시와 현재 北極星의 위치는 다르다. 왜냐하면 歲差運動에 의해 하늘의 北極이 移動되고 있기 때문이다.

歲差運動이란 回轉運動을 하는 物體의 回轉軸이 어떤 不動軸의 둘레를 回轉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空間을 들고 있는 地球에서도 나타난다. 달과 太陽에 의한 引力과 地球自體의 回轉力이 相互作用하여 地球의 歲差運動이 일어난다. 이 歲差運動으로

인해 地球의 回轉軸은 서서히 그 方向이 變化되며, 따라서 天球의 北極은 26000年을 週期로 變들 사이를 回轉⁷⁸⁾하게 된다. 歲差運動에 대한 記錄은 張景岳의 『類經圖翼·中星歲差考』⁷⁹⁾에 자세히 記錄되어 있다. 東晉時代의 慮喜는 五十年에 一度程度 變化한다고 하였으며, 隋代에는 七十五년에 一度程度 差異가 나며, 元代初에 郭守敬은 六十六년에 一度의 기이한 差異가 난다고 하였는데, 現代 天文學의 觀測으로는 72年에 1度⁸⁰⁾ 變化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歲差運動의 영향으로 後代 운기학설에서는 “古今異軌說”이나 “大司天”說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3) 北極星의 移動

現在 北極星으로 알고 있는 작은곰자리의 알파별 폴라리스는 事實上 天球의 北極에서 約一度 정도 떨어져 있으며 그 距離도 계속 변하고 있다. 이것은 北極星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歲差運動에 의하여 天球의 北極이 계속 移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天球의 北極은 폴라리스에 계속 接近하고 있는 중이며 西紀 2000年頃에는 距離가 가장 가까워져 約 ½度 以內에 들게 된다.

古代에는 天球의 北極이 폴라리스 近處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紀元前 3000年頃 黃帝時代의 北極星이라 불린 별은 용자리의 알파별인 투반이었다.

앞으로 12000年 以後에는 직녀 별 베가가 北極星이 될 것이며, 오랜 세월이 지나 約26000年 以後가 되면 다시 폴라리스가 北極星의 位

75) 星紀, 玄枵, 諏訔, 降婁, 大梁, 實沈, 鶉首, 鶉火, 鶉尾, 壽星, 大火, 析木이라 한다.
76) 柳基天 占星學이란 무엇인가 精神世界社. 1995 p.299
77) 天文宇宙科學研究所 歷書1995 명문당 1995 p.84
78) 이태형 별자리여행 영림사 p.95
79) 上揭書 p.27
80) 柳基天 占星學이란 무엇인가 精神世界社. 1995 p.376

置에 서게 될 것이다.⁸¹⁾

4) 鎮星의 意義와 二十八宿

(1) 鎮星의 意義

東洋學의 象數學的인 觀點에서 數의 構成은 陰陽, 五行, 六氣, 十干, 十二支 等 二進法이나 十進法 系統이 있다. 수시로 이동하는 行星의 위치와 다른 恒星들의 位置를 나타내기 위한 座表로 쓰였던 二十八宿의 二十八이란 숫자는 象數學的 觀點에서는 독특한 체계이다. 二十八이란 數의 선택은 天球의 赤道가 木星의 公轉週期에 의해 十二等分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土星의 公轉週期에서 起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史記·天官書』에서 根據를 볼 수 있는데 “土星은 德을 管掌하며 王侯의 星像이다. 每年 一宿의 天球를 通過하는데 土星이 머무는 나라는 吉하다”고 하였다. 실제 土星은 每年 13.04度⁸²⁾를 運行하며 二十八年만에 하늘을 一周한다. 따라서 土星이 每年 移動하는 軌道를 따라 二十八等分하여 二十八個의 星宿이 決定된 것이다.

(2) 二十八宿

二十八宿에 관한 記錄은 『書傳』에도 일부 보이기 때문에 周初 이전으로 그 起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紀元前 四世紀 前半에 天

文學者 ‘石申’이 살았던 時代에는 그 體系가 確立되어 있었다. 赤道 부근 몇몇 恒星들의 組合에 의해 不等한 間격으로 배치한 二十八宿은 수시로 이동하는 해와 달 및 行星들의 位置를 나타내기 위한 座標로써 十二次法보다도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었다. 이 二十八宿 각각의 별 자리에 基準點이 되는 恒星을 하나씩 두었고 그것을 ‘距星’⁸³⁾이라 불렀다. 距星을 포함한 二十八宿과 十二次와 十二支를 이후에 인디아를 통해 들어온 西洋類의 黃道 十二宮과 對應시켜보면 十二宮과 十二支의 順序가 서로 逆行⁸⁴⁾한다. 十二次^{85,86)}는 西에서 東으로 運行하는 木星軌道의 座標임에 反하여 十二支는 하루에 太陽이 東에서 西로 運行하는 地上의 方角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歲陰이라는 概念인데, 이는 거울에 비친 映像처럼 실제의 木星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假像의 歲星을 設定하기 위해 만들어진 單語이다. 地上의 觀點에서 思考를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東에서 생겨나 머리 위에서 全盛期를 이루고 서쪽으로 기울어 간다는 概念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歲陰은 이후에 玉皇上帝의 神靈이 顯現한 것이라 하여 太歲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81) 韓正준 별은하우주 전과과학사 1991 p.134

82) 朴一峰 史記 育文社. 1995 p.486

83) 柳基天 占星學이란 무엇인가 精神世界社. 1995 p.300

84) 藪內清 中國의天文曆法 平凡社. 昭和四四年 p.285 p.292

85) Joseph Needham 中國의科學と文明 제5권 思案社. 1979 p.283

86) 段逸山 醫古文 人民衛生出版社. 1986 pp.700-701

“古人들은 日·月·五星의 運行과 節氣의 變化를 說明하기 위하여 黃道 附近의 하늘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向하는 方向에 依하여 星紀·玄枵 等 12等分으로 나누어 十二次라고 하였다. 每次마다 28宿 중에 있는 어떤 星宿의 標誌가 된다. 例를 들면 星紀에는 斗宿과 牛宿, 玄에는 女宿·虛宿·危宿이 있으며 나머지도 모두 이와 같다. 그러나 十二次는 等分한 것이고 28宿의 間격은 同一하지 않기 때문에 十二次의 各次에 따른 始終의 間격은 宿과 宿의 分野와는 일치 할 수는 없다 ……” 圖式化 하면 [圖表1]과 같다.

【圖表1】

十二次	二十八宿	十二次	二十八宿	十二次	二十八宿	十二次	二十八宿
1. 星紀	斗·牛·女	4. 降婁	奎·婁·危	7. 鶉首	井·鬼·柳	10. 壽星	軫·角·亢·氏
2. 玄枵	女·虛·危	5. 大梁	胃·昴·畢	8. 鶉火	井·鬼·柳	11. 大火	氏·房·心·尾
3. 諏訖	危·室·壁·奎	6. 實沈	畢·觜·參·井	9. 鶉尾	張·翼·軫	12. 析木	尾·箕·斗

되었다. 天球에 十二次와 二十八宿가 복합되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공통되는 基準點이 있게 되었다. 이것이 天門과 地戶의 개념이다. 『周易』에서 乾坤은 天地의 門戶라 하여 『易·繫辭』에서 “是故闔戶謂之坤, 闔戶謂之乾, 一闔一闢謂之變”^{87,88)}라 하였으며, 『黃帝內經』「五運行大論」에서는 “所謂戊己分者, 奎壁角軫, 則天地之門戶也”⁸⁹⁾라 하였다. 張景岳은 “是日之長也, 時之暖也, 萬物之發生也, 皆從奎壁始. 日之短也, 時之寒也, 萬物之收藏也, 皆從角軫始, 故曰春分司開, 秋分司閉 …… 然自奎壁而南, 日就陽道, 故曰 天門角辰而北, 日就陰道, 故曰地戶”라 하여⁹⁰⁾ 一年 四季에 있어서 陰陽이 消長하면서 轉化盛衰하는 規律이 되는 기준으로 삼았다⁹¹⁾. 그러므로 張景岳은 “是以伏羲; 六十四卦方圖, 以乾居西北, 坤居東南, 正合天門地戶之義”라 하였다⁹²⁾. 二十八宿의 排列이 十二支와 逆行하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되었다. 다른 별들의 位置를 나타내는 座標인 二十八宿도 數千年間의 歲差運動에 의한 春分點 이동에 의해 그 위치가 조금씩 변화하였다. 따라서 古代에는 奎壁과 角軫 사이에 天門과 地戶인 春·秋分點이 있었으나⁹³⁾, 現在는 歲差運動에 의하여 事實上 室壁과 翼軫 사이로 옮겨져 있다.

(3) 東西洋의 時代 區分法

歲差運動은 東西洋 天文家들에게 있어 매우 기묘한 문제로 받아들여져 별자리 이동에 의한

‘時代 區分法’을 낳게 했다. 西洋의 占星學에는 歲差運動의 一週期인 25800年을 宇宙의 1年으로 보고 이를 ‘플라톤 년’이라 부르고 宇宙의 한 달은 十二等分인 約2150年에 該當하며, 現在는 春分點의 移動에 따라 四大聖人의 思想을 支配해 온 물고기座 時代가 마감되고 물병座 時代로 접어들었다⁹⁴⁾고 보고 있다. 東洋에서도 이와 類似한 時代 區分法이 있었는데 邵康節의 『皇極經世書·元會運世』⁹⁵⁾篇에 의하면 一年은 十二月이며, 一月은 三十日이란 基準을 두고 十二와 三十配數의 反復的인 擴張에 의해 一世는 三十年이고, 一運은 十二世로 三百六十年이며, 一會는 三十運으로 一萬八百年으로 歲差週期의 約 折半에 該當하며, 一元은 十二世로 十二萬九千六百年으로 把握하고 있다.

이러한 時代 區分法의 意義는 運氣에서 甲子가 六十年의 週期로 反復되는 時代의 進行에 立體的인 解釋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 가령 올해의 乙亥年과 과거의 乙亥年 및 미래의 乙亥年들이 모두 運氣의 進行과 氣候의 特徵이 類似하여 宇宙의 氣運이 反復되고 있다고 說明하고 있다.

7. 九宮八風과 五天·五運說

1) 『內經』의 曆法

이미 戰國時代의 天文學은 상당히 完整된 體系를 이루었고, 當時에는 諸侯들마다 曆法을 制定하였다. 『內經』曆法은 당시에 權威를 앞

87) 洪淳泌 備旨具解原本周易 繫辭上十 卷之二十二 朝鮮圖書株式公社編輯部 1923 p.70

88) 魏伯陽 周易參同契解 自由出版社 民國68年 p.3 “乾坤者 易之門戶 衆卦之父母”

89) 王 琦外4人 黃帝內經素問今釋 成輔社 1983 p.313

90) 楊 力 周易與中醫學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89 p.64

91) 鄭學熹外1人 中國醫易學 四川科學技術出版社 1988 p.335

92) 上揭書 p.64

93) 張景岳 類經圖翼 大成文化社 1986 p.27

94) 上揭書 p.380

95) 張景岳 類經圖翼 大成文化社 1986 p.33

세운 통치자에 따라 다르긴하지만 科學的인 觀測의 基礎 아래 成立되었다⁹⁶⁾.

「黃帝內經」에 나타난 曆法의 制定 方法⁹⁷⁾을 살펴보면, 첫째 黃道 白道 부근의 二十八星宿의 分布로 座標系를 삼았으며⁹⁸⁾, 둘째 北斗星이 가리키는 方位를 觀測하였으⁹⁹⁾, 셋째 日影을 表測하는 方法¹⁰⁰⁾, 넷째 寒暑往來를 主要한 氣候 規律로 삼았다¹⁰¹⁾.

구체적으로 「黃帝內經」에 나타나는 曆法의 基本 內用은 다음과 같다.

첫째, 計時法은 太陽이 平旦에 두번 이르는 平太陽日을 관찰하여 하루를 나누었는데 一百刻 혹은 十二 時辰으로 計算하였으¹⁰²⁾, 둘째 回歸年의 長度가 365.25個의 平太陽日로 보았으¹⁰³⁾, 셋째 一回歸年을 四時로 나누며 一時를 六個 氣節로 나누며 一氣를 三候로 分節하고 一候는 약 五日이 되는¹⁰⁴⁾ 推算法이다. 넷째

一回歸年을 六季로 나누며 一季는 一氣가 되어 60.875日로 計算¹⁰⁵⁾한 方法이다. 다섯째, 一回歸年을 斗建을 살펴 十二月로 나누었고¹⁰⁶⁾ 또한 六季의 初, 中을 살펴 十二氣月로 나눈 方法이다¹⁰⁷⁾. 여섯째 朔望月은 大小月로 나누고, 陰陽合曆은 氣餘를 쌓아 閏을 채우는 方法이다¹⁰⁸⁾. 일곱째 太陽 運行 一度를 보고, 月球 運行은 十三度로 보는¹⁰⁹⁾ 方法이다. 여덟째 干支 紀年¹¹⁰⁾ 紀日¹¹¹⁾으로써 十二支 紀月에 配置하는¹¹²⁾ 方法이다. 아홉째 一回歸年을 八節로 나누고, 葉蟄節 46日, 天留節 46日, 倉門節 46日, 陰洛節 45日, 天宮節 46日, 玄委節 46日, 倉果節 46日, 新洛節 45日¹¹³⁾씩 主管하는 方法이 九宮八風에 應用되고 있다.

2) 九宮八風

1977年 7月, 安徽省 阜陽縣의 前漢 汝陰侯

96) 徐振林 內經五運六氣學 上海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90 p.1

97) 上揭書 pp.1-19

98) 「靈樞·衛氣行」에는 “天周二十八宿, 而一面七星, 四七二十八星, 房昴爲緯, 虛張爲經”이라 하였으며, 또한 「素問·八正神明論」에는 “星辰者, 所以制日月之行也.”라 하였고, 「素問·六節藏象論」에는 “天度者, 所以制日月之行也.”라 하였다.

99) 「靈樞·九宮八風」篇을 參照.

100) 「素問·六節藏象論」에는 “立端于始, 表正于中, 推餘于終, 而天度畢矣”라 하였고 또한 「素問·八正神明論」에는 “因天之序, 盛衰之時, 移光定位, 正立而待之”라 하였다.

101) 「素問·氣交變大論」에는 “陰陽之往復, 寒暑彰其兆.”라 하였으며, 「素問·五運行大論」에는 “陰陽之升降, 寒暑彰其兆.”라 하였다.

102) 「靈樞·衛氣行」에는 “日有十二辰.”라 하였으며, 「素問·六微旨大論」과 「靈樞·五十營」과 「靈樞·衛氣行」은 즉 平太陽日을 一百刻의 計時法으로 나누었다.

103) 「素問·六微旨大論」에는 “日行一周(指一回歸年), 天氣始於一刻, 日行再周, 天氣始於二十六刻, 日行三周, 天氣始於五十一刻, 日行四周, 天氣始於七十六刻, 日行五周, 天氣復始於一刻”라 하였으니, 「內經」에 回歸年長度는 365.25個의 平太陽日임을 볼 수 있다.

104) 「素問·六節藏象論」에는 “五日爲之候, 三候爲之氣, 六氣謂之時, 四時爲之歲.”라 하였다.

105) 「素問·六微旨大論」의 六氣早晏說에 나타나 있다.

106) 「靈樞·衛氣行」에는 “歲有十二月, …… 子午爲經, 卯酉爲緯.”라 하였으며, 「靈樞·陰陽系日月」과 「素問·脈解篇」은 모두 月建을 論及했다.

107) 「素問·六微旨大論」에서 “故曰位明氣月可知乎? 所謂氣也.”라 하였다.

108) 「素問·六節藏象論」에서 “故大小月三百六十五日而成歲, 積氣餘而盈閏矣.”라 하였다.

109) 「素問·六節藏象論」에서 “行有分紀, 周有道理, 日行一度, 月行十三度而有奇焉.”라 하였다.

110) 「素問·天元紀大論」, 「素問·五運行大論」, 「素問·六微旨大論」, 「素問·六元正紀大論」 등에서 나타난다.

111) 「素問·藏氣法時論」, 「素問·平人氣象論」, 「素問·風論」, 「素問·刺熱論」, 「靈樞·陰陽系日月」, 「靈樞·九針論」,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에서 나타난다.

112) 「素問·天元紀大論」, 「素問·五運行大論」, 「素問·六微旨大論」, 「素問·六元正紀大論」 등에서 나타난다.

113) 「靈樞·九宮八風」을 參照

墓에서 天文學 및 占星用인 三種의 器械가 발견되었다¹¹⁴⁾. 그 중에는 第一號盤(소위 六壬式盤), 第三號盤(天文器械이지만 현재로는 用途不明)과 더불어 第二號盤의 이른바 太一九宮占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占盤의 出土는 「九宮八風」篇이 占盤의 解明에 가장 유력한 端緒를 제공하였다.

太一九宮占盤은 圓形의 天盤과 方形의 地盤으로 되어 있고 地盤에 달린 回轉軸이 天盤을 떠받치고 있다. 天盤의 上面, 地盤 上面의 테두리 안과 테두리 밖, 地盤의 下面에는 여러 가지 方位線이나 文字 등이 表記되어 있다. 天地盤 上面의 文字를 天盤·地盤의 테두리 안과 테두리 밖의 순서로 시계 방향으로 描寫하면 아래와 같다. “一君·當者有憂·冬至冬至計盤四十六日廢明日, 八·當者病·立春立春天溜四十六日廢明日, 三相·當者有喜·春分春分(分)蒼門四十六日廢明日, 四·當者有僂·立夏立(夏)陰洛四十五日明日, 九百姓·當者顯·夏至夏至上天四十六日廢明日, 二·當者死·立秋立(秋)玄委四十六日廢明日, 七將·當者有盜爭·秋分秋分倉果四十五日明日, 六·當者有患·立冬立冬新洛四十五日明日”¹¹⁵⁾이라 하였다.

八風의 氣位를 살펴보면, 「素問·八正神明論」에는 “星辰者, 所以制日月之行也. 八正者, 所以候八風之虛邪以時至者也.”¹¹⁶⁾라 하였으니, 八風은 八節이 定하는 當令 或은 不當令의 氣流인 것이다. 八風의 氣位를 「靈樞·九宮八風」이 論한 바를 要約하면 다음 【圖表2】와 같다.

【圖表2】 「靈樞·九宮八風」에 나타난 八風의 氣位

氣位	陽曆	風向	風名
天溜節	2/4,5-3/21	東北風	凶風
倉門節	3/22-5/6	東風	嬰兒風
陰洛節	5/7-6/21	東南風	弱風
上天節	6/22-8/5	南風	大弱風
玄委節	8/6,9/20	西南風	謀風
倉果節	9/21-11/5	西北風	剛風
新洛節	11/6-12-20	西風	折風
葉蟄節	12/21-2/3,4	北風	大剛風

八節은 四立·二分·二至를 基礎로 하여 定한 것이며, 이것이 八卦에 應한 것으로 九宮을 使用하여 方位를 表示한 것으로 洛書나 「易」에서 말하는 後天圖의 立場과 비슷하다. 天盤 數字의 配列은 縱·橫·斜의 合計가 모두 十五가 되는 方陣이니, 소위 後世의 洛書의 數와 같다. 五에 해당되는 중앙은 아무것도 씌어 있지 않다. ‘立秋·二·玄委. 秋分·七·倉果. 立冬·六·新洛. 夏至·九·上天. 招搖·五. 冬至·一·計盤. 立夏·四·陰洛. 春分·三·倉門. 立春·八·天溜.’의 文章에서 計盤(北)·天溜(東北)·倉門(東)·陰洛(東南)·上天(南)·玄委(西南)·倉果(西)·新洛(西北)·招搖(中央)는 각 方位의 宮名으로 「靈樞」에서는 宮名 아래 方位가 附記되어 있다. 隋의 蕭吉의 「五行大義」에 의하면 宮은 神이 노는 장소라 하였다¹¹⁷⁾.

「靈樞」 「九宮八風」篇에는 “太一常以冬至之日, 居犀蟄之宮四十六日, 明日居天溜四十六日,

114) 安徽省文物工作隊·阜陽地區博物館·阜陽縣文化局 阜陽雙古堆西漢汝陰侯墓發掘簡報 「文物」1978年 第8期 pp. 12-31

115) 山田慶兒 「九宮八風說と少師派の立場」 東方學報(第五十二冊) 京都 1980 p.203

116)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成輔社 1980 p.223

117) 中村璋八 五行大義校註 汲古書院 昭和59年 p.33

「卷一·論數·論九宮數」 “謂之九宮 皆神所遊處 故以名宮也”라 하였다.

明日居倉門四十六日, 明日居陰洛四十五日, 明日居上天四十六日, 明日居玄委四十六日, 明日居倉果四十六日, 明日居新洛四十五日, 明日復居葉蟄之宮, 曰冬至矣”¹¹⁸⁾라 하였다. 즉 太一神은 冬至日에 汁蟄宮에 있고 거기에서 四十六日間 머물고 立春日에는 天溜宮으로 이동한다. 以下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순환하여 一年後의 冬至日에는 다시 犀蟄宮으로 돌아온다고 하였다. 「五行大義」에서 인용한 「黃帝九宮經」에서 “太乙이 九宮을 행할 경우, 數가 작은 것에서 많은 것으로 가는데 그 數를 順하기 때문이다”¹¹⁹⁾라 한 것과 같다. 그것은 틀림없이 占盤의 사용 방법과 관계된다.

또한 「靈樞」「九宮八風」篇에서 “太一在冬至之日有變. 占在君. 太一在春分之日有變. 占在相. 太一在中宮之日有變. 占在吏. 太一在秋分之日有變. 占在將. 太一在夏至之日有變. 占在百姓.”¹²⁰⁾라 하였으니, 이는 天盤에서 君·相·吏·將 등의 文字가 占盤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부분이 記載되어 있다. 이러한 文章이 바로 太一九宮 占盤의 解說로 볼 수 있으며, 占 내지는 占盤에 관한 당시의 狀況을 알 수 있다.

太一九宮占盤이라 하였지만 太一과 九宮은

다른 占의 體系이다. 「史記」「日者列傳」에서 五行家·堪輿家·建除家·叢辰家·曆家·天人家와 더불어 占卜家의 하나로 太一家를 들고 있다¹²¹⁾. 太一은 후세에 이르기까지 占星術의 중요한 一分科로 六壬·遁甲과 합하여 三式이라 불렸으며 天文臺에 그 專門職이 설치되어 있었다¹²²⁾. 九宮도 또한 一家를 이루었다는 것은 「三國志」吳書의 趙達傳에서 엿볼 수 있다. 趙達은 河南人이지만 漢의 侍中 單甫에게 師事하여 ‘九宮一算之術’을 著作하였으며¹²³⁾, 그는 항상 ‘諸星氣風術者’에 대하여 十數로만 계산하면 文밖에 나가지 않고도 天道를 알 수 있는데 밤낮으로 外氣를 맞아 가며 고생스럽게 ‘氣祥을 望’하는 것을 비웃고 집에 들어 박혀 計算에 몰두하였다¹²⁴⁾고 하였다.

「靈樞·九宮八風」에서 “太一移日, 天必應之以風雨”¹²⁵⁾라 하여 九宮占이 風雨를 占하는 특히 占風과 결부되었다. 그러나 九宮의 占은 太一 또는 六壬 遁甲 等과는 달리 독립의 占卜術로서는 일찍이 소멸되었다. 「藝文志」 등에 나타난 書名으로 推測하면 대략 唐代까지이며, 宋代에서는 완전히 쇠퇴하였다. 그러므로 오늘날 九宮의 책은 약간의 佚文만 남아 있을 뿐

118)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成輔社 1980 p.565

山田慶兒는 그의 논문인 「九宮八風說と少師派の立場(p239)」에서 “다음의 文章은 ‘太一常以冬至日. 居汁蟄之宮四十六日. 明日居天溜四十六日. 明日居倉門云云.’으로 끊어 읽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太一九宮占盤의 文字와 對比할 때 ‘明日’은 ‘四十六日’ 내지는 ‘四十五日’로 이어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만 ‘明日’이 무엇을 意味하는가는 확실치 않다.”고 하였다.

119) 中村璋八 五行大義校註 汲古書院 昭和59年 p.35 “故黃帝九宮經云. (中略)太乙行九宮 從一始 以少之多 順其數也”라 하였다.

120)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成輔社 1980 p.567

121) 馬持盈註 史記今註 臺灣商務印書館公司 民國76年 pp.3270-3271

「史記·卷一百二十七·日者列傳」에서 “孝武帝時 聚會占家問之 某日可取婦乎. 五行家曰可. 堪輿家曰不可. 建除家曰不吉. 叢辰家曰大凶. 曆家曰小凶. 天人家曰小吉. 太一家曰大吉. 辯訟不決 以狀聞.”라 하였다

122) 山田慶兒 「授時曆의 道」(「中國의 科學과 科學者」所取, 京大人文學研究所, 1978年)를 參照.

123) 「三國志·卷六十三·吳書·卷十八·吳範·劉惔趙達傳」에서 “趙達 河南人也. 少從漢侍中單甫受學 用思精密. (中略)治九宮一算之術 究其微旨.”라 하였다.

124) 「三國志」趙達傳에서 “達常笑謂諸星氣風術者曰 當廻算帷幕 不出戶牖以知天道 而反晝夜暴 露以望氣祥 不亦難乎 聞居無爲 引算自校.”라 하였다.

125)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成輔社 1980 p.567

이다.¹²⁶⁾

山田慶兒는 九宮占과 醫學이 결부되기 위해서 “風”이란 媒體가 結合되어 醫學 속에 이 占을 導入되게 한 연유이며, 確實한 文獻을 『太素』卷二十八의 「八正風候」¹²⁷⁾篇(『靈樞』卷十二 「歲露論」篇)이라 主張하고 있다.

楊上善의 『太素』「八正風候」에는 “九宮經¹²⁸⁾曰 太一者玄皇之使 常居北極之傍犀蟄 上下政天地之常口起也. 汁蟄. 坎宮名也. 太一至坎宮 天必應之以風雨 …… 名爲實風 …… 爲衝後來 虛風 賊傷人者也.”¹²⁹⁾라 하였다.

다음 논술되는 「八正風候」篇(「歲露」篇)의 內容은 “虛邪入客於骨 而不發於外 至其立春 陽氣大發 腠理開 因立春之日. 風從西方來 萬民又皆中於虛風 此兩邪相薄 經氣絕代”¹³⁰⁾라 하였는데, 일반적인 占辭에서는 生理學的 내지 病理學的인 說明은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腠理開’한다는 用語는 바로 醫學上에서 하나의 論點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故諸逢其風而遇其雨者, 命曰遇歲露焉, 因歲之和而少賊風者, 民少病而少死. 歲多賊風邪氣, 寒溫不和, 民多病而多死矣.”¹³¹⁾라 하여 疾病에 관한 論述이 이어 지고 있다.

醫家가 風占에 이끌린 것은 물론 ‘風’ 또는 ‘風雨’의 概念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左傳』

昭公元年에 病의 外因으로서 六氣를 거론한 說이 보이는데 六氣는 陰·陽·風·雨·晦·明이다.¹³²⁾ 東洋醫學에 있어서 後世까지 風은 가장 중요한 外因 중의 하나로 여겼다. 九宮占風家는 風에 虛實을 구별하고 太一이 있는 方向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實風, 그 逆方向의 바람을 虛風이라 하였다. 冬은 北風, 夏는 南風이라 하여 그 季節에 당연히 그 方向에서 불어오는 것으로 기대되는 風이 實風, 그 逆이 虛風이다. 따라서 ‘虛實’의 概念에 의해 風占은 醫學에 導入되었으며, 虛風은 疾病의 外因으로 「歲露」篇에서 ‘起毫毛 發腠理’¹³³⁾라 하여 體內로 침입을 記述하고, 또한 그 末尾에 ‘三虛三實’¹³⁴⁾의 概念을 導入하고 있다.

以上을 綜合하면 九宮八風說은 古代 太一九宮占盤의 占星術의 한 분야로 東洋醫學에 있어 虛實의 概念과 外因의 代表的인 概念인 風邪로 導入되었으며, 回歸年을 八節로 나눈 曆法이 應用되고 있다. 또한 八風의 變化에 對한 自然氣象의 說明이 「靈樞·九宮八風」, 「靈樞·歲露論」, 「靈樞·九針論」, 「素問·金匱眞言論」, 「素問·玉版要論」等 篇에 論述되고 있다.

3) 五天·五運說

『黃帝內經』에서는 二十八宿과 北斗星과 斗

126) 山田慶兒 「九宮八風說と少師派の立場」 東方學報(第五十二冊) 京都 1980 p.206
 127)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1991 pp.533-535
 128) 山田慶兒는 「九宮八風說と少師派の立場(p208)」에서 「九宮經」을 鄭玄의 注釋로 보고 있다.
 129)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1991 p.533
 130)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成輔社. 1980 p.599
 131) 上揭書 p.599
 132) 李宗侗註譯 春秋左傳今註今釋 臺灣商務印書館公司 民國76年 p.1051
 133)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成輔社. 1980 p.600
 134) 上揭書 p.598 “乘年之衰, 逢月之空, 失時之和, 因爲賊風所傷, 是謂三虛”, “逢年之盛, 遇月之滿, 得時之和, 雖有賊風邪氣, 不能危之也, 命曰三實”이라 하였으니, 이는 歲氣의 不及한 虛年과 有餘한 盛年을 意味하므로 運氣理論의 太過·不及 概念과 相通한다.

柄의 旋轉 變化의 周期로 四時 陰陽의 變化 過程을 標示하고 있는데, 「天元紀大論」에서 “太虛寥廓, 肇基化元, 萬物資始, 五運終天, 布氣眞靈, 總統坤元. 九星懸朗, 七曜周旋”¹³⁵⁾이라 하여, 天氣는 萬物을 構成하고 五運이 運動을 始作하여 眞靈의 氣가 布散되어 坤元을 總統하게 되어 天上의 星象에 影響을 미치게 된다.

「五運行大論」에서는 “臣覽太始天元冊文, 丹天之氣, 經于牛女戊分, 蒼天之氣, 經于心尾己分, 蒼天之氣, 經于危室柳鬼, 素天之氣, 經于亢氐昴畢, 玄天之氣, 經于張翼婁胃, 所謂戊己分者, 奎璧角軫, 則天地之門戶也.”¹³⁶⁾라 하여 天干으로써 地面의 五方을 氣位로 삼고 있다. 여기에서 言及된 ‘戊己’는 十干이며, 五方을 表示하고 四時主運과 地理五方 그리고 五運 屬性을 定義하고 있다. 十干은 또한 晝夜와 紀日 등으로 定義되었고, 陰陽 變化를 十年 週期로 五運의 太少 相生의 節律變化를 導入하였다.

또한 「天元紀大論」에는 “五氣運行, 各終蕃日, 非獨主時也”¹³⁷⁾라 하였으니, 五運은 五로써 여러 가지 氣位를 設定하고 있다. 「黃帝內經」에 나타나는 五運이 主時하는 主運¹³⁸⁾의 概念 以外에 歲運¹³⁹⁾, 客運¹⁴⁰⁾, 日運¹⁴¹⁾, 晝夜五運¹⁴²⁾, 地理五運¹⁴³⁾ 등의 記載를 볼 수 있다. 이러한 五運의 概念은 東洋醫學에 있어 五星, 五天, 五音, 五色, 象數,

五化, 五畜, 五果, 五蟲 등 여러 方面에 比類取象 되어 運用되고 있다.

「靈樞·衛氣行」篇에는 “子午爲經, 卯酉爲緯, 天周二十八宿, 而一面七星, 房昴爲緯, 虛張爲經”¹⁴⁴⁾이라 하여 十二地支로써 六氣의 氣位를 삼고 있다. 古人은 二十八宿(黃道附近에서 分布)이 坐標系上의 太陽周年에서 視運動과 北斗星의 旋轉方向과 相反됨을 觀察하였다.

五星·五天說에서 胎動된 五運節律은 每年 發生하는 違反된 自然과 人體의 變化 現象을 解釋할 수 없어, 六年을 週期로 하는 六氣節律이 發現되어 司天·在泉과 六季의 客·主氣를 導入하여 四時의 陰陽 變化를 完全하게 解釋하였다. 十二支는 陰陽 定義를 따라서 晝夜 十二時辰과 周天 十二辰을 表示하였고, 十二月建 陰陽節律과 二十四氣八節, 六季 主氣節律을 定義 하고 있다.

古人들은 長期間의 天文 觀測을 通하여 五運六氣의 節律과 週期를 發見한 然後에 運用한 假說의인 方法에서 太虛에서 五天의 形成과 天文을 解釋하여 「素問·五運行大論」에서 “候之所始, 道之所生”¹⁴⁵⁾, “天地陰陽者, 不以數推, 以象之謂也.”¹⁴⁶⁾라는 結論을 내리게 되었다.

以上을 綜合하면 「黃帝內經」에 나타난 天體 運行과 地理方位의 構成은 各種 氣象의 變化가

135)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成輔社 1980 p.494

136) 上揭書 p.501

137) 上揭書 p.494

138) 徐振林 內經五運六氣學 上海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90 pp.33-35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 「靈樞·五音五味」, 「素問·金匱眞言論」, 「素問·陰陽類論」, 「素問·氣交變大論」, 「素問·五常政大論」 등에 記載되어 있다.

139) 上揭書 pp.25-32 「五運行大論」, 「天元紀大論」, 「六元正紀大論」, 「五常政大論」 등에서 記載되어 있다.

140) 上揭書 p.36 「素問·六元正紀大論」 등에 記載되어 있다.

141) 上揭書 pp.36-38 「素問·藏氣法時論」, 「素問·平人氣象論」,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 등에 記載되어 있다.

142) 上揭書 pp.38-39 「素問·三部九候論」, 「素問·玉機眞藏論」, 「素問·藏氣法時論」, 「靈樞·病傳」, 「素問·標本病傳論」,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 등에 記載되어 있다.

143) 上揭書 pp.40-42 「素問·異法方宜論」, 「素問·陰陽應象大論」, 「素問·五常政大論」, 「素問·五運行大論」, 「素問·氣交變大論」, 「素問·六元正紀大論」, 「素問·六節藏象論」, 「素問·金匱眞言論」 등에 記載되어 있다.

144)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成輔社 1980 p.551

145)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成輔社 1980 p.502

146) 上揭書 p.501

東洋醫學에 있어 陰陽五行의 概念으로 導入되었고, 『內經』 天文學은 日月星辰의 回歸年과 地球 公轉과 自轉의 結果로 産出된 各種 周期 變換인 曆法과 陰陽 變化를 運氣 理論인 十干과 十二支를 導入하여 說明하고 있다.

8. 日月星辰의 小考

西洋歷의 體系는 一週日의 單位를 七日인데, 東洋에서도 이를 七曜라 하여 日·月·火·水·木·金·土가 된다. 즉 陰陽의 日月과 五行의 木·火·土·金·水인 것이다.

東洋뿐 아니라 西洋의 古代 文明의 形成 時期에 七曜가 重要한 意義를 가지는 理由는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의 星辰이었고 人間 生活에 직접 미치는 影響도 至大하였기 때문이다. 日의 出沒이 晝夜를 만들었고 밤하늘에 뜬 달은 盈虧가 反復되었으니, 日月을 除外한 밤 하늘의 가장 밝은 五星은 다른 恒星들에 비해 그 밝기와 움직이는 軌道가 特異하여 古人들의 關心의 對象이었다.

宇宙는 時間과 空間의 두 要素로 成立되었으니, 宇는 前後·左右·上下의 六合 즉 空間性을 말하며, 宙는 古今·現在의 時間性을 나타내며 이는 變化와 秩序이다.

古人들의 持續인 宇宙 觀察을 通하여 變化의 秩序가 一定하고 豫測이 可能한 法則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 日月과 恒星인 十二宮, 二十八宿과 같은 太陽系外의 우리 은하 속의 恒星이다. 五星은 가장 밝은 다섯 별인 同時에 그 밝기와 운행의 軌道가 一定하지 않고 豫測하기 힘든 對象이었다. 이러한 별들의 豫測이 可能한 運行 秩序와 體系 속에서 非秩序인 變化 즉 日食, 月食, 歲差 運動에 의한 恒星의 移動, 五行星의 逆行, 留, 彗星의 出現과 같은 現狀들을 人間事의 吉·凶·禍·福과 結付시켜 占星學의 誕生을 낳았다.

古代 文明의 誕生과 思想的 體系를 낳게 한 天文學은 當時의 여러 分野에 溶解되어 存在하고 있었으며, 中國에는 陰陽五行說이 殷代부터 存在하였으나 思想的인 體系로 形成된 것은 春秋戰國 時代인 紀元前 四世紀 鄒衍으로부터 起源된다. 따라서 戰國時代에서 後漢에 걸쳐 成書된 『黃帝內經』에도 天文學的 知識이 結付되어 있다. 天體觀測 裝備와 技術이 發達함에 따라 現代에는 太陽系內의 行星이 九個라고 밝혀졌지만, 天王星·海王星·冥王星은 望遠鏡을 통한 觀測과 天體物理學的 計算에 依하여 最近에 그 存在를 알게 된 것이고 實際로 肉眼으로 觀察되어지는 것은 木·火·土·金·水星의 五個 行星 뿐이다.

그런데 太陽系의 九個의 行星 가운데 太陽으로부터 세 번째에 位置한 地球에만 生命體가 存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太陽과 달의 크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만 地球라는 기준점에서 볼 때 태양과 달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보인다. 다만 陽을 象徵하는 太陽은 낮과 밝음을 主管하며 그 模樣은 항상 一定하며, 陰을 象徵하는 달은 밤을 主管하며 그 模樣에 盈休가 있다. 이런 이유로 地球에 비춰지는 陰과 陽의 氣運이 理想的으로 調和될 수 있었다. ‘다른 行星에는 왜 生命體가 存在하지 않는가?’의 疑問은 陰陽과 六氣의 調和 與否로 說明되어 질 수 있다.

內行星인 金星은 地球보다 太陽에 가까워서 地球에서 보는 것보다 太陽이 훨씬 크게 보이며 金星의 過亢된 陽을 收斂시킬 수 있는 陰인 달이 없다. 그러므로 金星은 陽이 過亢될 수 밖에 없어 두터운 황산 구름으로 둘러싸여 地表의 溫度가 섭씨 470도가 넘는 불덩어리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外行星인 火星은 太陽은 地球에서 火星을 보는 정도보다 조금 더 밝게 빛나는 별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反面에 달의 숫자는 二個이다. 그러므로 火星의 大氣는 地球에 比하면 極端的으로 陰의 過亢한 狀態에 있어 表面은 氷河로 덮여 있다. 이러한 行星과 比較하면 地球는 日月과 五行星의 氣運이 理想的으로 陰陽의 調和와 均衡이 適切한 位置에 놓여 있다.

無形의 形而上學의 乾坤의 精神은 日月이 代行하는데, 陽의인 太陽은 地球에 熱을 加하고 陰의인 달은 地球를 冷却한다. 따라서 地球에서는 寒熱 作用으로 氣運의 運動이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陰陽과 寒熱의 作用이 反復하는 동안에 地球에서는 三陰三陽의 氣가 發現하게 되어 風·火·暑·濕·燥·寒의 六氣인 것이다. 이러한 陰陽之氣가 反復的으로 交流하여 風·火·濕은 熱로 發展되고, 熱과 燥는 寒으로 退場하면서 熱氣는 물을 만들고, 寒氣는 氷을 만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물과 氷은 日月의 所産이기에 水火의 形質은 日月이다. 即 地球에 日月의 寒熱이 交流하면 濕氣가 發生한다. 濕氣가 發生한 以後에도 日月은 繼續하여서 寒熱之氣를 所産하므로 寒熱의 交流를 받으면서 차츰 물이 되었던 것이다. 濕氣가 寒冷之氣와 엉키면서 太陽光線이 地球에 輻射한 熱을 壓縮하게 되므로, 地球에는 長夏가 五六月의 炎天을 形成하게 된다. 이와 같은 日月의 陰陽 交流는 地球의 傾斜로 因하여 寒熱의 差를 甚하게 되어 四時를 形成하게 된다.

이러한 古代 天文學 知識이 「黃帝內經」의 運氣 理論과 結付되어 나타나는데, 구체적인 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運氣學說은 古代 天文學의 基礎上에 氣候의 年變을 豫測하고 推算하여 人體의 疾病에 미치는 影響을 研究하는 學問이다. 天文學이 運氣學說에 導入된 原因은 「內經」의 長期間 醫學 實踐 過程에 宇宙 萬物의 整體性의 認識하게 됨에 있다.

「黃帝內經」에서 人間은 時間·地域·自然影

響·天體·自然界와 生物之間에 分割할 수 없는 關係로 宇宙의 天文을 反復 觀察하여 五運 六氣 學說로 總結하고 있다. 즉 「內經」에서 四季 變化는 日月星辰이 天體에 不斷한 運動의 結果에 있다고 認識하여 「天元紀大論」에는 “天有五行, 御五位, 以生寒暑燥濕風”이라 하였다.

또한 「內經」에서는 宇宙의 天體 運動을 說明함에 있어 地球의 四季 變化를 導入하고 있다. 즉 「五運行大論」에서 宇宙間에는 “寒暑六入”하며, 地球上에 “燥勝則地乾, 暑勝則地熱, 寒勝則地熱” 등의 氣候 變化와 關聯性을 言及하였다. 이러한 論述는 實際의 觀察을 通하여 내린 結論임을 알 수 있는데, 「六元正紀大論」에는 “夫六氣者, 行有次, 止有位, 故常以正月朔日平旦視之, 觀其位而知其所在矣.”라 하였고, 「六微旨大論」에는 “因天之序, 盛衰之時, 移光定位, 正立而待之.”라 하여 當時의 宇宙 變化의 認識이 素朴하고 直觀的이지만 重要한 見解가 包含되어 있다.

「天元紀大論」에는 “臣積考太始天元冊文曰, 太虛寥廓, 肇基化元, 萬物資始, 五運終天, 布氣眞靈, 總統坤元, 九星懸朗, 七耀周旋, 曰陰曰陽, 曰柔曰強, 幽顯既位, 寒暑弛張, 生生化化, 品物成章.”이라 하여 宇宙 變化의 本源을 밝히고 있다. 즉 廣漠 無限한 宇宙는 萬物을 孕育하는 造化의 기틀로 天地 化生의 本源이 되고, 九星이 太空에 밝게 비치며 日月과 五星이 還周하며 地球가 運行하여 비로소 陰陽의 消長과 剛柔의 相濟와 晝夜의 明暗과 寒暑의 交替와 萬物의 生化가 생기는 것이다. 이는 四季와 氣候와 晝夜의 變化는 天體의 運行에 決定됨을 나타내고 있다.

天地는 太虛의 陰陽 二氣가 漸積되어 이루어졌으니 「陰陽應象大論」에는 “積陽爲天, 積陰爲地”라 하여, 天은 上에 있고 地는 下에 있으며

人間과 萬物은 天地 가운데에 居處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天地와 森羅萬象도 宇宙의 一部分임을 認識하여 「五運行大論」에는 “地爲人之下, 太虛之中者也 …… 憑乎? …… 大氣舉之也”라 하였다. 즉 地의 位置는 人의 下面에 있고, 地球의 自體는 太虛의 가운데 位置하여 宇宙의 大氣가 支撐하고 있다고 論述하고 있다.

天地의 作用에 關하여 「五運行大論」에는 “夫變化之用, 天垂象, 地成形, 七曜緯虛, 五行麗地, 地者, 所以載生成之形類也. 虛者, 所以列應天之精氣也. 形精之動, 猶根本之與枝葉也, 仰觀其象, 雖遠可知也”라 하여 天上에 매달려 있는 辰星으로 要約하고 있다. 즉 七曜가 緯虛하니 日月과 五星이 天空의 衆星間을 橫越하며, 天은 象을 드리우며, 地는 有形의 體가 되어 萬物의 形類를 生成시킨다. 즉 天象을 보아 天地의 陰陽 變化로 알 수 있으니 이를 天體의 星辰과 地球의 萬物 變化 關係를 論述하고 있다.

天氣는 太虛의 大氣가 相通하니 그 性質에 依하여 風·寒·暑·濕·燥·火의 六氣로 나누어지며, “燥以乾之, 暑以蒸之, 風以動之, 寒以堅之, 火以溫之”인 六氣의 作用으로 말미암아 萬物의 生化가 不息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內經」에는 整體한 宇宙가 ‘大氣’를 造成하고, 둥근 宇宙 가운데 天旋地轉하며 ‘氣’는 또한 運動變化를 停止하지 않아 天化한 즉 ‘六氣’가 된다. 地에서는 五行이 產生되어 六氣와 五運의 氣化·物化하는 過程을 「天元紀大論」에서는 “夫變化之用, 在天爲氣, 在地成形, 形氣相感而化生萬物. 氣有多少, 形有盛衰, 上下相召, 而損益彰矣.”라 하였다.

以上은 宇宙 天體論과 人間의 關係를 說明한 것으로 運氣學說은 萬物의 化生과 氣候가 有關하며 아울러 古代 天文學이 「內經」理論의 基礎가 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內經」에는 하늘의 日月星辰 運行과 땅에서 萬物의 生成이 직접적으로 相關됨을 觀察하였고, 運氣學說은 日月의 運行과 天度와 萬物 生成의 氣數가 關聯이 있음을 論述하고 있다. 「六節藏象論」에는 “天度者, 所以制日月之行也. 氣數者, 所紀化生之用也.”라 하였는데, 張介賓은 「類經圖翼·運氣上·氣數統論」에서 “故歲之日數, 由天之度數而定. 天之度數, 實由日之行數而見也”라 하여 天度を 地球 公轉의 周天 度數인 365.¼을 意味하고 있다. 「六節藏象論」에는 “日爲陽, 月爲陰, 行有分紀, 周有道理, 日行一度, 月行十三度而有奇焉”이라 하여 太陽과 月이 天空에서 一定한 軌道와 速度로 運行하며, 太陽이 매번 一度를 行하면(古人들은 地球가 돌지 않고 太陽이 돈다고 생각) 月은 每日 十三度を 行한다고 하였다.

天體의 星辰은 九星과 二十八宿과 七曜를 包含하며, 그 가운데 太陽의 影響이 地球에 가장 많이 미친다. 地球의 公轉은 季節의 交替와 氣候 變化를 決定하는 要因이다. 地球의 公轉은 自轉軸이 公轉 軌道面에서 기울어져 66°33'의 傾斜角이 있는데, 즉 地球의 赤道面과 公轉 軌道面인 黃道의 交叉角은 90°-66°33' = 23°27'이 된다. 따라서 天球上에 赤道와 黃道의 交角은 23°27'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張衡은 渾天儀를 創案하여 黃赤二道를 設定하여 二十四度を 計算하였다. 一年 가운데 太陽의 高度가 差異가 있어 晝夜의 長短이 생기며, 이로 인하여 地面이 吸收하는 太陽의 輻射 熱量의 差異가 있어 寒來暑往한 四季의 交替가 形成된다. 이를 「陰陽應象大論」에서는 “天有八紀, 地有五里”라 하여, 春夏秋冬의 四立와 二分, 二至를 八紀라 하니 太陽이 黃道線上에 運行되는 不動한 位置를 말한다. 즉 夏至時에는 太陽은 赤道에서 北에 位置하며 北半球는 太陽의 高度가 比較적 높아 晝長夜短하며 氣候는 炎熱하게 된다. 冬至는 이와 反對가 되며, 春

秋二分은 太陽이 赤道에 位置하게 된다.

以外에 「氣交變大論」에서는 五星이 天空의 運行에서 ‘以道’(順行), ‘有留’(行星이 某處에서 不動), 逆(行星이 後退), ‘守’(長時間 머무름), ‘環’(逆行하고 轉함이 順인데, 原來의 路線을 넘지 않고 軌道에 하나의 環을 이룸) 등의 五星의 運行을 觀察하였다. 또한 「氣交變大論」에는 歲運에 關하여 “歲運太過, 則運星北越, 運氣相得, 則各行以道”라 하여 太過와 不及에 따른 歲星의 軌道·順行關係를 觀察하고 있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古代 日月星辰의 觀測과 記錄의 蓄積은 文明과 思想의 所産이며, 이러한 天文에 關한 思想體系는 戰國時代의 形成되어 「黃帝內經」의 天文에 關한 記載를 미루어 보아 그 理論的인 流入의 可能性이 크다.

또한 古代 天文學에 있어 日月星辰의 天體 運行은 時間의 推移에 따라 必然的으로 空間의 位置가 移動됨을 把握하였고, 이러한 天文 知識이 「黃帝內經」에는 地球와 日月 五星의 相應 位置와 角度의 變化가 自然界의 氣候를 決定하는 要因이 됨을 「七篇大論」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天文學은 自然界의 變化가 人間의 疾病에는 어떠한 影響을 미치는 가를 研究하는 運氣 理論을 胎動시켰다.

III. 結 論

論者は 「黃帝內經」의 日月星辰에 關한 研究에서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첫째, 殷代 甲骨文에서 부터 星宿의 이름을 記錄하고 있었으며, 文獻上으로 가장 오래된 記錄은 「書傳」이다. 古代 天文學은 占星의 傾向을 가지며, 五行學說과 結合되어 「黃帝內經」의 理論 形成에 影響을 미치게 되었다.

둘째, 「書傳」에서는 宋代 錢樂이 또한 渾天儀를 鑄造하였으며, 이미 秦國과 漢代 등에서 天文을 觀測하였다. 天體觀測 器具인 璣機玉衡은 後世에 傳하여 지면서 渾天儀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

셋째, 「黃帝內經」 「五運行大論」의 宇宙構造論에 대한 認識을 鬼臾區는 蓋天說의 天體構造論을 言及하였으나 岐伯은 渾天說의 立場을 表明하고 있다. 또한 「五運行大論」의 大氣論에서 땅은 太虛 속에 있으며 大氣가 땅을 支撐하여 宇宙에 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넷째, 「黃帝內經」의 五星에 關聯된 內容은 「金匱眞言論」 「氣交變大論」 「六元正氣大論」 등에서 보여지며, 五星의 認識 方法에 있어서는 五星의 밝기, 高度, 色, 運行 軌道 등을 그 對象으로 하였다.

다섯째, 十二年의 公轉 週期를 가진 歲星은 十二辰, 十二次, 黃道十二宮, 十二支, 十二分野 등을 나누는데 基準이 되었고, 十二進法의 起源이 되었다.

여섯째, 約二十八年 公轉 週期를 가진 鎮星은 天球의 座標로 쓰여진 二十八宿의 基準이 되었다.

일곱째, 歲差運動으로 太一의 位置가 移動되며, 春秋分點의 變化를 가져와 古代의 天門地戶는 奎壁角軫位에서 明代는 室壁翼軫位로 變化되었다. 또한 歲差運動은 元會運世 등의 時代區分法을 낳았으며, 이는 六十年 週기로 똑같이 돌아가는 六十甲子에 立體的인 解釋의 바탕을 마련하였다.

여덟째, 九宮八風說은 古代 太一九宮占盤의 占星術의 한 분야로 東洋醫學에 있어 虛實의 概念과 外因의 代表的인 概念인 風邪로 導入되었으며, 「黃帝內經」에 나타난 曆法은 日月星辰의 回歸年과 地球 公轉과 自轉의 結果로 產出된 陰陽 變化를 多樣하게 十干과 十二支를 導入하여 說明하고 있다.

IV. 參考文獻

1. 洪元植 黃帝內經素問 傳統文化研究院 1994.
 2. 白允基 黃帝內經運氣解釋 高文社 1991.
 3.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논장 1988.
 4. 洪淳泌發行 備旨具解原本周易 朝鮮圖書株式會社編輯部 1923.
 5. 書傳 麗江出版社 1992.
 6. 書經集傳 朝鮮圖書株式會社編纂 1983.
 7. 洪元植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1984.
 8. 야마다 케이지 朱子の 自然學 동나무 1991.
 9. 宋榮培 諸子百家의 思想 玄音社 1994.
 10. 李珉秀 新譯諸子百家 흥신문화사 1994.
 11. 李錫浩 淮南子 世界社 1994.
 12. 司馬遷 史記列傳 乙酉文化社 1993.
 13. 朴一峰 史記「本紀·表·書」 育文社 1995.
 14. 俞景老 天象列次分野之圖600年學術大會 韓國天文學會 1995.
 15. 柳基天 占星學이란 무엇인가 精神世界社 1995.
 16. 權泰勳 天符經의 秘密과 白頭山族文化 精神世界社 1989.
 17. 이태형 韓國의 天文圖 天文宇宙企劃 1995.
 18. 羅逸星 새 天文學 正音社 1993.
 19. 조경철 現代天文學 大光印刷公社 1989.
 20. 민영기 外2人 敎養天文學 螢雪出版社 1994.
 21. 이항순 우리太陽系 현암사 1995.
 22. 天文宇宙科學研究所 歷書 明文堂 1995.
 23. 이태형 별자리여행 영림사 1992.
 24. 현정준 별은하우주 전과과학사 1991.
 25. 戴內清 中國의 天文學 科學選書 1985.
- 〈中 國〉
1.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1991.
 2. 李炳文 外4人 黃帝內經素問今釋 成輔社 1983.
 3.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成輔社 1980.
 4. 楊柳傑 黃帝內經靈樞譯解 成輔社 1980.
 5. 程士德 外2人 素問注釋 粹 人民衛生出版社 1982.
 6. 張介賓 類經下 大成文化社 1986.
 7. 張介賓 類經圖翼 大成文化社 1986.
 8. 余自漢 外7人 內經靈素考 中國中醫藥出版社 1992.
 9. 徐振林 內經五運六氣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10. 魏伯陽 周易參同契解 自由出版社 民國68年.
 11. 陸儋辰 外1人 運氣辨與臨證錄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87.
 12. 楊力 周易與中醫學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89.
 13. 鄒學熹 外1人 中國醫易學 四川科學技術出版社 1988.
 14. 段逸山 醫古文 人民衛生出版社 1986.
 15. 李宗侗註譯 春秋左傳今註今釋 臺灣商務印書館公司 民國76年.
 16. 劉君燦 中國天文學史 明文書局 民國77年.
 17. 鄭文光 中國天文學源流 科學出版社 1979.
 18. 陳遵媯 中國天文學史 〈第一冊·諸論編·古代天文學史編〉 明文書局 民國73年.
 19. 陳遵媯 中國天文學史 〈第二冊·星象編〉 明文書局 民國73年.
 20. 陳遵媯 中國天文學史 〈第四冊〉 明文書局 民國73年.
- 〈日 本〉
1. Joseph Needham 中國の科學と文明 제5권 思索社 1979.
 2. 戴內清 中國의 天文曆法 平凡社 昭和44年.
 3. 中村璋八 五行大義校註 汲古書院 昭和59年.
 4. 山田慶兒 「九宮八風說と少師派の立場」 東方學報(第五十二冊) 京都 1980.